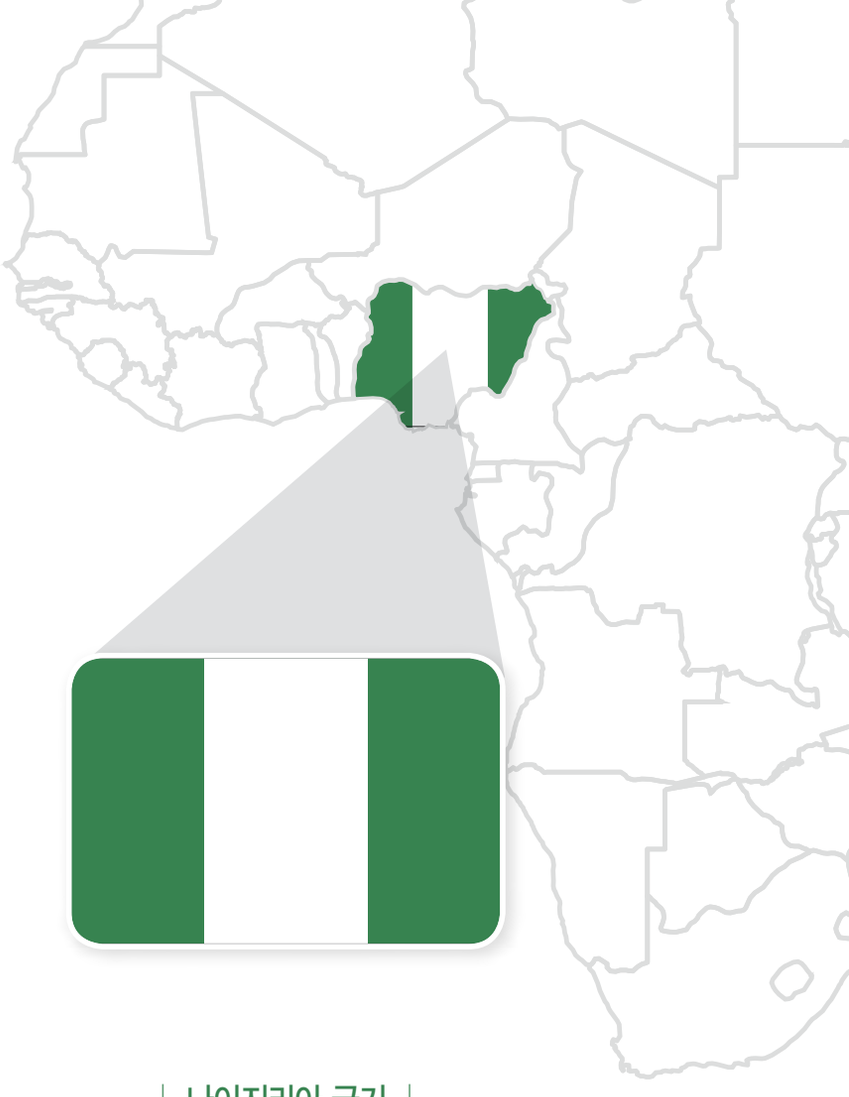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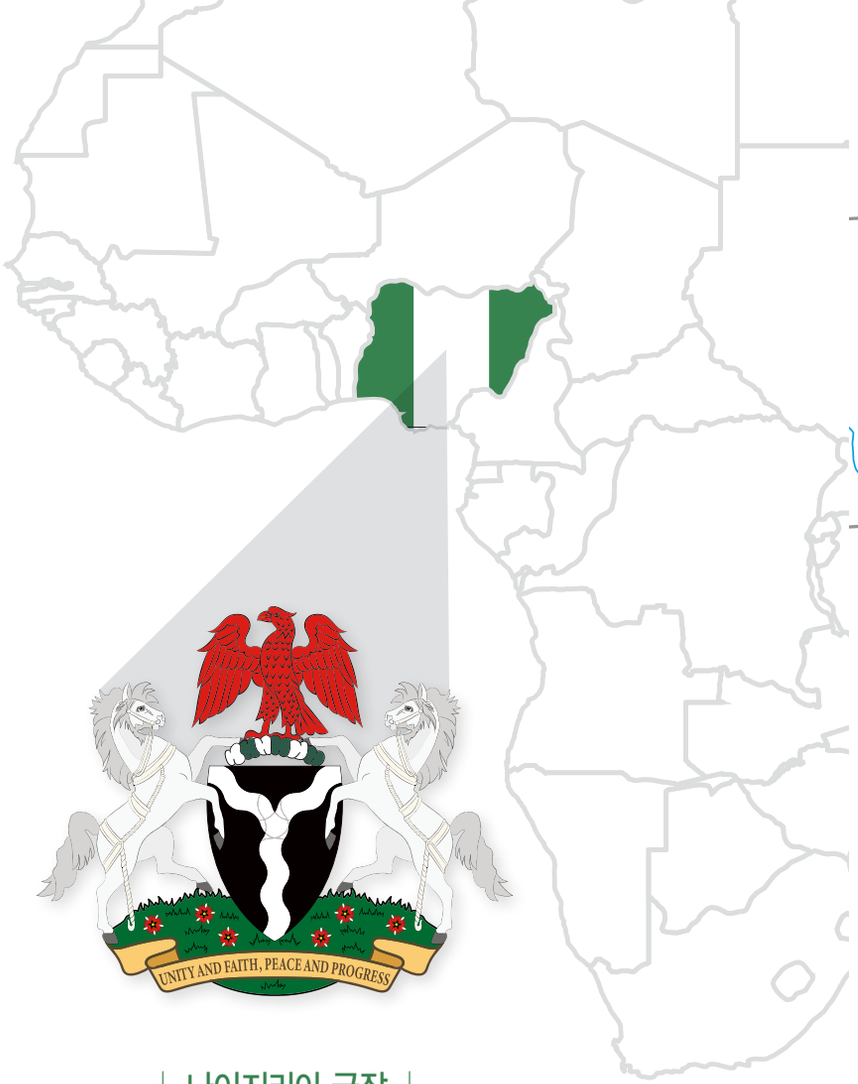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국기 |

1960년 10월 1일 공모를 거쳐서 독립과 함께 제정

■ 초록색은 풍부한 삼림과 천연자원을 의미

□ 하얀색은 평화와 화합의 의미



| 나이지리아 국장 |

- 국장 가운데 하얀색 Y자가 새겨진 검정색 방패는
나이지리아의 두 개의 큰 강인 베누에강(Benue)과 나이저강(Niger)을 의미.
- 방패 양쪽의 두 마리의 하얀색 말은 존엄을 의미.
- 방패 아래에는 국화인 코스투스꽃(Costus) 배치.
- 방패 위쪽 하얀색과 초록색의 띠는 농업을, 붉은 독수리는 역량을 의미.



CONTENTS

I 개황
1. 개 관 ····· 010
2. 지 리 ····· 013
3. 기 후 ····· 014

II 약사
1. 고대국가 ····· 018
2. 유럽인의 침투 ····· 019
3. 영국 식민지 시대 ····· 019
4. 독립과정 ····· 020
5. 독립이후 ····· 021

III 정치
1. 정치제도 ····· 032
2. 상황적 배경, 세력구도 및 정치행태 ····· 039
3. 독립 후 정부/지도자 연혁 ····· 044
4. 주요 정세불안 요소 ····· 050

IV 외교
1. 외교정책 목표 ····· 056
2. 기존 외교정책의 주요 경향 ····· 057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 062
4. 나이지리아-카메룬 국경분쟁 ····· 068
5. 對테러 대응 ····· 070

V 경제
1. 개 관 ····· 076
2. 경제 전망, 부문별 동향, 개발정책 및 전략 ····· 078
3. 에너지자원 보유 및 관련 산업 현황 ····· 081
4. 건설산업 ····· 085
5. 통신산업 ····· 086
6. 전력산업 ····· 087
7. 통상환경 ····· 088

VI 군사
1. 국방정책 목표 ····· 094
2. 국방조직/지휘체제 ····· 095
3. 군사력 ····· 096

VII 사회·문화
1. 민족 구성 ····· 100
2. 인 구 ····· 101
3. 언 어 ····· 102
4. 종 교 ····· 102
5. 노 동 ····· 103
6. 보 건 ····· 104
7. 빈 곤 ····· 106
8. 교 육 ····· 106
9. 언 론 ····· 110
10. 문 화 ····· 111

VIII 한국과의 관계
1. 외교관계 ····· 116
2. 양국 교류 현황 ····· 118
3. 재외국민 현황 ····· 134

IX 북한과의 관계
1. 외교관계 ····· 138
2. 주요 인사 교류 ····· 140
3. 주요 협정 체결 ····· 143
4. 경제관계 ····· 144
5. 주요단체 ····· 145

X 방문 안내
1. 항공편 ····· 148
2. 출입국 수속 ····· 148
3. 기타 참고사항 ····· 150





개황

1. 개관 010
2. 지세 013
3. 기후 014

I 개황



1 | 개 관

» **국 명** :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 **위 치** : 북위 4°~14°, 동경 3°~14°, 서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하며 남쪽은 대서양 기니만에 접경
- 국경선 4,047㎞(카메룬 1,690㎞, 니제르 1,497㎞, 베냉 773㎞, 차드 87㎞), 해안선 853㎞

» **면 적** : 923,768㎢(세계 32위, 한반도의 4.2배)

» **영 해** : 12해리(1978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인 구** : 약 1억 9,180만 명(2017년 AfDB, 세계 7위, 아프리카 1위)

» **수 도** : 아부자(Abuja)[1)]

» **민족구성** : 하우사-풀라니(33%, 북부), 요루바(21%, 서부), 이보(18%, 동부) 등 250여 민족

» **언 어** : 영어(공용어), 하누사(Hausa)어, 풀라니(Fulani)어, 요루바(Yoruba)어, 이보(Igbo)어 등 토착어 520여종(아프리카 1위)

» **종 교** : 헌법상 국교 지정 금지
- 이슬람교(50%, 북부), 기독교(40%, 남부), 토착 신앙(10%)

» **독립일** : 1960년 10월 1일(舊 영국령)

» **유엔가입일** : 1960년 10월 7일

» **국경일** : 10월 1일

» **정치형태** : 대통령 중심제 3권분립 연방공화국(국회 : 양원제)
- 연방은 수도(FCT: Federal Capital Territory)와 36개의 주(State)로 구성

» **국가원수(정부수반)** :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 **국내 총생산(명목 GDP)** : 3,757.7억 달러(세계 34위, 2017년 기준)

» **1인당 실질 GDP** : 2,412.4억 달러(세계 140위, 2017년 기준)

» **회계 연도**: 1.1 ~ 12.31

» **화폐단위** : 1 나이라(Naira) = 100 코보(Kobo)[2)]

1) 1991.12.12 Lagos로부터 이전
2) 공식 환율 $1= ₩306.9(2019.4월 기준)

» **무역 수지(2018년 기준)** : $194억 흑자

- 수출 : 약 626억 달러(주요 수출 품목: 석유, 천연가스, 참깨, 코코아)
  ···› 주요 수출 대상국 : 인도(15.9%), 네덜란드(10.7%), 스페인(10.1%), 프랑스(7.9%), 미국(6.1%) 등
- 수입 : 약 $432억(주요 수입 품목: 정제유, 기계류 사탕수수 등)
  ···› 주요 수입 대상국 : 중국(19.4%), 네덜란드(11.4%), 대한민국(10.8%), 미국(7.3%), 인도(5.2%), 프랑스(2.9%) 등[3)]

» **대외부채** : 794억 달러(2018년말 기준)

» **외환보유고** : 450억 달러(2019년 4월 기준)

» **소비자 물가상승률** : 11.25%(2019년 3월)

» **주요 자원**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강, 코코아, 고무, 목재

» **군사력** : 약 210,000여명(추정)

- 육군 62,000명, 해군 8,000명(해안경비대 2,000명 포함), 공군 10,000명
- 준군사 조직(경찰, 치안부대): 80,000명
- 지원제이며, 예비군 제도 보유(약 50,000명)

» **국제기구 가입** : UN(United Natio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AU(African Union),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영연방(Common wealth of Nations)등

3) 2018년 한국 점유율이 10.8%(보통 1~2%)를 차지한 이유는 삼성중공업의 Egina FPSO(2013년 수주) 수주 금액(1조 1,593억 나이라)이 반영되었기 때문

2 | 지 리

가. 지 형

» 해안 습지대, 열대 우림지대, 삼림 및 초원지대, 고원지대(북부) 등 다양

» 해안 습지대는 남쪽 20~90㎞ 폭의 망그로브(홍수목)가 무성한 지대이며, 그 북쪽이 80~160㎞ 폭으로 고도 300m 이하의 기복이 심한 열대 우림지대. 그 위로 500㎞에 걸쳐 드문드문한 삼림 및 초원지대가 연속되고, 최북단에는 넓고 완만한 고원지대가 사하라 사막과 연결됨

» 베누에강 북쪽 180㎞ 지점 Jos 및 Plateau 지역은 해발 1,200m 내외의 고지대(최고 1,800m)

나. 하 천

» **나이저강** : 기니, 말리, 니제르를 지나 나이지리아 중부를 거쳐 남부 지역에서 기니만으로 빠져나가는 총 길이 4,180㎞의 강으로, 아프리카 3대 하천 중 하나

» **베누에강** : 나이지리아를 동에서 서로 횡류, 나이저강 남쪽에서 나이저강과 합류하며, 합류점 부근에는 분지가 형성

» 나이저강과 베누에강 이외에 요베(Yobe)강, 콰(Kwa)강, 아남브라(Anambra)강 등의 나이저강 지류 들이 나이지리아 국토를 동서로 횡류

3 | 기 후

가. 특 성

» 기니만과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건기(겨울/봄)와 우기(여름/가을)로 구분되며, 남부와 북부의 기후가 상이

» 남부 기니만에 가까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북쪽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은 사막에서 내려오는 열기로 고온 건조

나. 남부 지방

» 11~3월은 건기, 남서쪽은 지역에 따라 5~8월이 우기이며 남동쪽은 5~10월이 우기, 우량은 1,788㎜ 4,318㎜에 기온은 2~4월이 최고, 8월이 최저(평균기온 28℃~32℃)



△ 하마탄 시즌 중 공항

» 우기에 내리는 비는 강한 바람과 천둥을 동반하며, 건기인 12~1월에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섞인 하마탄[4] 빈발



△ 하마탄 모래먼지

4) 회색의 미세한 먼지와 함께 부는 열풍

다. 북부 지방

» 내륙지방은 5~10월, 접경지역은 6~9월이 우기이며, 강우량은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평균 508~1,270㎜ 정도

» 기온은 3~6월이 최고, 12~1월이 최저이며, 평균 23℃~34℃이나 계절에 따라 기온의 차가 있고 일교차가 큰 편

나이지리아 평균 기온 및 강우량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라고스 (Lagos)	기후 (℃)	최고	32	33	33	32	31	29	2	28	29	30	31	32
		최저	22	24	24	24	23	22	22	22	22	22	23	23
	강우량(㎜)		10	40	80	150	200	300	240	120	160	130	40	10
아부자 (Abuja)	기온 (℃)	최고	35	37	37	36	33	31	29	29	30	32	34	35
		최저	20	23	25	25	24	22	22	22	22	22	19	19
	강우량(㎜)		0	10	10	60	140	170	210	220	240	100	0	0





약사

1. 고대국가 018
2. 유럽인의 침투 019
3. 영국 식민지 시대 019
4. 독립 과정 020
5. 독립 이후 021

II

약사



1 | 고대국가

» 고대 아프리카의 교역로 역할을 하던 이 지역은 많은 민족단위 국가들로 구성되어 서수단 대제국(Great Empires of the Western Sudan)의 일부를 이루다가 AD 850년경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이주한 흑인들이 농경 원주민을 규합하여 카넴보르누 제국(Empire of Kanem-Bornu)을 건설하였으며 이 왕국은 1086년경 이슬람교를 왕실국교로 채택하여 800 여년 간 유지되었으며 전성기에는 인근 소왕국들이 조공을 바침

» 11세기경 북부 나이지리아에 하우사 왕국이(Hausa State) 건설되어 인근 도시국가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의 무역이 성행하였으며 이 왕국은 회교도적 통치방식을 채택

» 나이저강 하류 서부지역에는 11세기에 요루바 소왕국들이 일종의 연합(Confederation)을 형성, 대내 문제에 있어서의 독립권을 보유하면서 상호간의 평화 유지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1400년경에는 니제르-델타지역에 베냉 왕국 시대가 열려 15세기경 인접국가 중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룩

» 16세기말경 세네갈강 계곡으로부터 이주한 풀라니인들은 북부 대부분을 장악, 19세기 초에 풀라니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통치질서를 정립하고 학문을 장려하여 문예혁명을 이룩

2 | 유럽인의 침투

» 1470년 포르투갈인들이 유럽인들로서는 최초로 라고스 해안에 상륙, 1486년 베냉 왕국과 포르투갈 간에 외교사절을 교환

» 16세기에는 유럽인들이 대거 진출해 노예무역에 종사하였고, 특히 영국은 16세기 중엽 이후 노예 무역회사를 다수 설립하였음. 1815년부터 노예무역이 금지되자 야자유와 원료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으로 전환하여 나이지리아 경제권을 장악

» 1861년 10월 6일 영국은 라고스(Lagos)에 대한 영토권을 획득하고, 1862년 식민지화하였으며, 1874~1886년간 라고스 식민 보호령(Colony and Protectorate of Lagos)라는 이름으로 라고스를 영국 총독의 지배하에 통치

3 | 영국 식민지 시대

» 영국은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열강들로부터 나이저강 유역일대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1893년에는 '니제르 해안 보호령(Niger Coast Protectorate)'를 선포하였으며,

1900년 1월 이를 확대 개편하여 남나이지리아 보호령(Protectorate of Southern Nigeria)와 북나이지리아 보호령(Protectorate of Northern Nigeria)으로 구분, 양 보호령에 각각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파견

» 1906년 영국은 라고스 보호령과 남부 보호령을 병합, 남나이지리아 식민·보호령(Colony and Protectorate of Southern Nigeria)를 건설하였으며 1914년 1월 1일에는 이를 북부 보호령과 통합, 영국 식민·나이지리아 보호령(British Colony and Protectorate of Nigeria)으로 명명하고 영국총독이 전권 장악

4 | 독립 과정

» 1922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식민 남부지역입법회의(Legislative Council for the Colony and the Southern Provinces)가 창설되고 나이지리아인 10명을 포함한 46명의 의원을 선출

» 1946년에는 리차드(Richards) 헌법이 공포되어 전국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중앙입법회의(Central Legislative Council)를 설치하였으나, 리차드(Richards) 헌법에 반대하고 자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어, 1948년 8월 나이지리아·카메룬 민족회의(National Council of Nigers and Cameroons)(NCNC, 1944.8 창당) 당수 은남티 아지키웨(Nnamdi Azikiwe)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영국에 파견, 헌법 개정을 요구

» 1950년 1월 맥퍼슨(Macpherson) 헌법에 따라 입법기관으로 나이지리아인으로 구성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만들어졌고, 중앙 집행기관으로 각료 내각(Council of Ministers)이 설치

» 1957년 5~6월 런던의회 결과 1957년 8월 8일 나이지리아 동서부 지역에 자치가 인정되고, 1957년 9월 2일 아부바카 타파와 발레와(Abubakar T. Balewa)가 나이지리아 초대 수상에 지명되어 각 당 출신 인사를 골고루 안배한 거국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1959년도에는 북부에도 자치정부 수립

» 1958년 9~10월 런던 제헌의회 결정에 따라 1960년 10월 1일 나이지리아는 독립하게 되었으며, 발레와 수상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다가 1963년 10월 9일 남디 아지키웨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1공화국 출범

5 | 독립 이후

가. 제1공화국

» 1958년 런던 제헌의회 결과에 따라 1960년 10월 1일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발레와 수상이 연방제 내각책임제의 연방내각을 구성하였으나, 1963년 10월 9일 은남디 아지키웨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공화국 출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나이지리아는 1979년까지 빈번한 쿠데타에 의한 군부통치 경험

나. 군부 통치시대

(1) 제1차 쿠데타

» 1966년 1월 15일 추쿠마 카두나 은제오그와(Chukwuma Kaduna Nzeogwa) 소령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 북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아그이 이론시(Aguiyi Ironsi) 소장에 의해 진압

» 1966년 1월 16일 이론시 장군이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헌법 일부를 정지시켜 13년간에 걸친 군부 통치시대가 시작

(2) 제2차 쿠데타

» 1966년 7월 29일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소요사건과 관련하여 이론시 장군이 피살되고, 1966년 8월 1일 야쿠부 고원(Yakubu Gowon) 중령이 집권하여 특사령 발표, 주요 정치범들을 석방

(3) 비아프라 내전(1967~1970년)

» 1967년 5월 30일 동부지역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인 추쿠에메카 오두메구 오주쿠(Chukwuemeka Odumegwu Ojukwu) 중령이 동부 나이지리아 자문의회 결정에 따라 비아프라 공화국 독립(The Independent Republic of Biafra)를 선포함으로써 나이지리아는 1967.7.6부터 2년 반에 걸친 내전이 시작됐으며, 비아프라 내전은 미·소 등의 강대국들이 자국 이해에 따라 동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양상으로 발전

» 1970.1.8 오주쿠 장군은 비아프라 정권을 필립 에피옹(Philip Effiong) 소장에게 이양하고 코트디부아르로 망명하였으며, 비아프라의 임시수도 오웨티(Owerri)를 연방정부군에 의해 탈환하고 에피옹 소장이 연방정부군에 항복함으로써 내전이 종결(1970.1.12)

(4) 무혈 쿠데타

» 1975.7.29 무혈 쿠데타로 무르탈라 라마트 무하메드(Murtala Ramat Muhammed) 준장이 집권하였으나, 1년도 채 되지않은 1976년 2월 14일 무하메드 장군이 피격되어 올루세군 오바산로(Olusegun Obasanjo) 장군이 국가원수로 취임

다. 민정 이양

» 1975년 10월 1일 당시 집권중이던 무하메드 준장이 피격되기전에 1979년 10년 1일까지 민정이양을 계획함에 따라 1976년 9월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헌법초안이 만들어져 제헌회의(1977.8.31. 구성)에 회부 · 심의후 1978년 6월 군사정부 승인을 얻어 제2공화국 헌법으로 확정되어 1978년 11월에 공포

» 확정된 헌법에 따라 투표권자 등록이 실시되고 과도 군사정부가 설치되어 1978년 9월 21일 정치활동이 재개되었으며, 1979년 7~8월 간 연방 및 주의 상·하 의원, 주지사, 대통령 선거 등이 실시되어 국민당(National Party of Nigeria)의 셰후 샤가리(Shehu Shagar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1979년 10월 취임과 동시에 13년간의 군정이 종식되고 민정으로 복귀

라. 군정 복귀

(1) 제5차 무혈 쿠데타

» 1983년 12월 31일 군부의 무혈 쿠데타로 샤가리 대통령의 민정이 3년 만에 붕괴되고, 군사정부는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소장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군사회의(19명으로 구성)를 설치

» 군사정부는 샤가리 정권 말기의 부정부패 일소, 경제부흥 및 사회기강 재정립 등을 구호로 내세우고 이전 정권 인사에 대한 군사재판, 국경봉쇄를 통한 노동시장 보호, 화폐개혁 및 국민기강 확립 운동을 전개

- 반면 군사정권의 긴축 및 개혁에 대해 노조, 학생층의 소요와 의사 등의 파업이 잇달아 일어나 불안한 정세 지속

(2) 제6차 무혈 쿠데타

» 1985년 8월 27일 무혈 쿠데타가 재차 발생하여 부하리 군사정권이 붕괴되고, 이브라힘 바방기다(Ibrahim Babangida, 전 육참총장)를 대통령 겸 군총사령관으로 추대하여 군사정권을 수립함. 또한, 28명으로 구성된 군사 통치위원회를 최고 통치기관으로 결정

(3) 쿠데타 시도 불발

» 1990년 4월 22일 북부세력 주도하에 군사 정부에 불만을 품어온 초급장교의 주동으로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10시간 만에 진압

- 쿠데타 주동 및 적극 가담자 69명은 총살형

(4) 민정이양 선거 무효와 군부 재집권

» 1985년 8월 쿠데타로 집권한 이브라힘 바방기다(Ibrahim Babangida) 정권은 1989년 5월 민정이양을 위한 제3 공화국 신헌법을 공포

» 동 신헌법에 따라 1993년 6월 1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요루바족(Yoruba) 출신인 모슈드 아비올라(Moshood Abiola)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당시 군 실세들은 바방기다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부정선거 등을 구실로 1993년 6월 23일 해당 선거를 무효화

» 바방기다 대통령은 선거 무효화에 따른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1993년 8월 29일 어네스트 쇼네칸(Ernest Shonekan)이 이끄는 임시정부 출범

» 1993년 11월 17일 국방장관 사니 아바차(Sani Abacha) 대장이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로 임시정부가 재차 붕괴되고 군부가 재집권

» 아바차 대장은 1998년 10월 1일까지 정권을 민정으로 넘기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독재를 일삼으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던 중 1998년 6월 8일 심장마비로 사망

(5) 아부바카르 정부와 민정 이양

» 아바차 사망 후 국가원수로 추대된 압둘살라미 아부바카르(Abdulsalami Abubakar) 참모총장은 1999년 5월 29일까지 민정이양을 약속한 후, 예정대로 기초 자치단체, 주지사, 연방 및 주 상·하원 의원, 대통령 선거를 순조롭게 실시하여 민정이양

마. 민정으로의 복귀

» 1999년 2월 27일 대통령 선거결과 국민 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PDP)의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1999년 5월 29일 제4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민정으로 재복귀

» 2003년 4월 대선에서 오바산조 대통령이 북부 무슬림 지역에 기반을 둔 최대야당

전인민당(ANPP, All Nigeria Peoples Party)의 부하리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되고(총 투표수의 약 60% 이상인 2,400만표 획득), 상/하원 선거에서도 여당인 국민민주당(PDP)가 압도적 우세 확보

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 2007년 5월 29일 나이지리아 평화적 선거를 통해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Umaru Musa Yar'Adua)가 당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

»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되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12월 연방 대법원이 무효소송을 기각

사. 야라두아 대통령 급서 및 조나단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 야라두아(Yar'Adua) 대통령은 임기 중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 있었으며, 2009년부터 신병치료차 장기간 해외 체류가 지속되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자, 2010.2월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되었으며, 2010년 5월 야라두아(Yar'Adua)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

아. 조나단 대통령 재선 출마

» 2010년 5월 취임한 조나단 대통령은 남부 바옐사주 출신으로, 소속 정당인 국민민주당(PDP: People's Democratic Party) 일각에서는 조나단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만 재직할 수 있으며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격론 끝에 조나단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인정

» 조나단 대통령은 2010년 9월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2011년 1월 PDP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77%의 지지를 획득, 당내 경쟁자인 북부 출신 아티쿠 아부바카(Atiku Abubakar) 전 부통령을 누르고 PDP의 대선 후보로 선출

자. 조나단 대통령 재선

» 2011년 4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1999년 민정복귀 이후 가장 공정한 선거로 평가된 가운데, 조나단 대통령이 유효투표의 59% 및 36개주 중 31개주 및 수도 아부자(Abuja)에서 최소 25% 득표

- 대통령 선거 직후,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북부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 최소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 대통령 취임식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도 아부자 시내의 무선전화망 전체를 불통시킨 가운데 거행(5월 29일)

차. 부하리 대통령 취임(2015년) 및 재선(2019년)

» 2015년 5월 여당 후보 조나단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야당 후보 부하리가 승리, 나이지리아 역사상 최초로 평화로운 여야 간 정권교체 달성

- 부정부패 척결과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격퇴 등 공약을 기반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으나, 달리 경제상황과 정세가 갈수록 악화
- 니제르-델타 지역의 반군공격으로 원유 1일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외환보유고 부족, 14%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 등 미흡한 경제 성과 및 건강상의 이유로 빈번한 해외(영국) 체류 등 비판 직면

» 그럼에도 2019년 2월 치러진 대선에서 부하리 대통령이 야당 후보 아티쿠 아부바카(Atiku Abubakar)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리, 2019년 5월 제2기 행정부 출범

- 1기 집권기간 정책성과 부진 등 비판 불구, 특히 북부에서 야당후보에 월등한 우세 점유
- 부하리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역점으로 안보, 경제 구조조정 및 부패척결을 주창하고, 국가 통합 및 포용을 강조중

역대 국가원수

한글	영문	비고
아부바카 타파와 발레와	Abubakar T. Balewa	'60
은남디 아지키웨	Nnamdi Azikiwe	민선, '63
아그이 이론시	Aguiyi Ironsi	군부, '66
야쿠부 고원	Yakubu Gowon	군부, '66
무르탈라 라마트 무하메드	Murtala Ramat Muhamme	군부, '75
올루세군 오바산로	Olusegun Obasanjo	군부, '76
셰후 샤가리	Shehu Shagari	민선, '79
무함마두 부하리	Muhammadu Buhari	군부, '83
이브라힘 바방기다	Ibrahim Babangida	군부, '85
어네스트 쇼네칸	Ernest Shonekan	민간인, '93
사니 아바차	Sani Abacha	군부, '93
압둘살라미 아부바카트	Abdulsalami Abubakar	군부, '98
올르세군 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	민선, '99 및 '03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	Umaru Musa Yar'Adua	민선, '07
굿럭 조나단	Goodluck Ebele Jonathan	대행 '10.2, 정식 승계 '10.5
굿럭 조나단	Goodluck Ebele Jonathan	민선, '11.4
무함마두 부하리	Muhammadu Buhari	민선, '15.5 및 '19.5





정치

1. 정치 제도 032

2. 상황적 배경, 세력구도 및 정치 행태 039

3. 독립 후 정부/지도자 연혁 044

4. 주요 정세불안 요소 050

III

정치



1 | 정치 제도

가. 행정부

(1) 대통령

»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 영문 공식 직함 : Presid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 대통령(President)은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Head of State), 연방행정수반(Chief Executive of the Federation) 및 나이지리아 연방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직을 수행

» 대통령 선거는 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30~60일 사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1)]

(2) 부통령

» **예미 오신바조**(Yemi Osinbajo)[2)]

(3) 내 각

» 연방부처별로 각각 1~2명의 각료가 있으며, 36개 주에서 최소 1명씩 장관을 배출하도록 헌법에 규정[3)]

» 연방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 국회 상·하의원이 연방 각료에 임명될 시 의원직은 상실

» 매주 수요일 대통령, 부통령 및 전 각료가 참석하는 연방국무회의(Federal Executive Council) 개최

(4) 주지사

» 전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 36명[4)]

» 주지사는 주 의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주정부 장관(Commissioner)을 임명

» 대통령, 부통령, 각 주지사가 참석하는 주지사 회의(National Council of State)에서 연방

1)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재선 가능(미국 헌법 모방)
2) 부통령은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대통령 유고시 직무 승계
3) 큰 부처의 경우에는 장관(Honourable Minister) 이외에도 일종의 차관(Junior Minister) 성격인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을 추가로 설치
4) 헌법에 규정된 주지사 임기는 4년이며 재선 가능

정부와 각 주가 관련된 주요 국가적 사안 결정[5]

(5) 대통령 특별보좌관

»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특별 보좌관을 임명 가능

» 부하리 대통령은 비서실장(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정무보좌관(Special Adviser on Political Matters), 경제보좌관(Special Adviser on Economic Matters), 석유자원보좌관(Special adviser on Petroleum Resources), 언론 및 공보보좌관(Special Adviser, Media and Publicity to the president), 니제르 델타 앰네스티 지사 보좌관[6](Special Adviser, Niger Delta Amnesty Office) 등 운영

(6) 경 찰

» 경찰청장(Inspector General)은 경찰 고위간부로 구성된 경찰위원회(Nigeria Police Council)의 건의를 참작, 대통령이 임명

» 각 주의 경찰장관(Commissioner of Police)은 연방정부 내에 설치된 경찰인사위원회(Police Service Commission)에서 임명

(7) 연방 위원회 설치

» 헌법 규정에 따라 각종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7]

5] 1999년 민선정부 등장 이후 주지사들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유력 주지사들은 차기 대권 후보 예비군으로 인식

6]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위협하는 무장단체 발호를 겪고 있던 니제르 델타(Nigeria-Delta)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8년 9월 니제르 델타부를 신설

7] 각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지명된 자는 상원의 동의 필요

나. 입법부

(1) 구 성

»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임기 각 4년)

» 상원의원은 36개 각 주별 3명 및 연방수도 아부자 1명 등 총 109명

» 하원의원은 정원 360명[8]

(2) 권 한

» 상원은 대통령이 요청한 각료에 대해 임명 동의권을 가지며 군대 해외 파병 시 사전 동의권 보유

» 양원은 각종 입법권, 예산 심의권, 연방 재정지출 승인권 등 보유

(3)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양원 공히 총 정원의 1/3 출석

» 의결 정족수 :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단순 과반수

»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만 정식 법률로 완성(단, 대통령이 동의한 법안은 상원 또는 하원 중 한 곳에서만 2/3 다수결로 통과시 정식 법률로 혜택)

8] 상·하원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상·하원 의원들이 호선

(4) 활 동

» 연간 최소 181일 이상 개회

» 활동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부처 관련 업무를 심의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출석 및 설명 요구

» 겸직 금지 : 상·하원 의원이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부지사, 연방 각료, 주정부 장관, 대통령 특별 보좌관 등이 될 경우 의원직 상실

(5) 특이 사항

» 상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연방정부 서열 3위

» 양원 합동총회시 상원의장이 전체의장이 되며, 상원의장 부재시 하원의장이 의장직 수임

다. 사법부

» 연방사법권은 대법원(Supreme Court), 연방항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에 속함.

- 수도 아부자에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회교항소원(Sharia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관습항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의 3개 법원 소재
- 주의 사법권은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 회교 항소원(Sharia Court of Appeal of State), 관습항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State)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에 귀속

(1)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1명과 최고 21명까지의 판사들로 구성(대법원은 연방과 주 및 주 상호간의 분쟁과 연방항소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 심리)

(2) 연방항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 연방 항소원은 원장 1명과 49명 이하의 판사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이슬람법 전문가 3명 이상, 관습법 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

(3) 연방 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s)

» 연방고등법원은 재판장 1명과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

(4) 수도청 고등법원, 회교항소원, 관습항소원

» 재판장 1명과 다수의 판사들로 구성

(5) 주법원(State Courts)

»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 재판장 1명과 다수의 판사로 구성되며, 각 주는 필요시 이슬람 민사법을 다루는 회교항소원(Sharia Court of Appeal)과 관습법항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설치 가능

라. 정 당

» 나이지리아의 정당은 과거에는 국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전인민당(All Nigerian People's Party), 민주동맹당(Alliance for Democracy) 등 3개였으나 2002.6월 선거관리위원회는 All Progressive Grand Alliance(APGA), National Democratic Party(NDP), United Nigeria People's Party(UNPP) 등의 정당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허가

» 과거 3대 정당 중 PDP는 북부와 동남부 지역에, ANPP는 북서부 일부와 북동부 일부 및 중부 지역에, AD는 서남부 요루바인 거주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2003년 오바산조 대통령 재선 과정에서 PDP가 북부 지역에서 세를 확산시키면서 기존의 3대 정당 구도가 와해

- 특히 2007년에는 최악의 부정선거 속에서 PDP가 야라두아 대통령과 상·하의원 및 주지사의 대다수를 배출, 전국 정당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 2011.4월 총선에서 남서부 지역에서 ACN(Action Congress of Nigeria)이 선전하고, ANPP 및 진보혁신당(Congress for Progressive Change), APGA(All Progressive's Grand Alliance) 등도 일정 의석을 확보, PDP의 우위 약화

» 2013년 4개의 야당 ACN, CPC, ANPP, APG가 연합하여 나이지리아 행동당(All Progressive Congress)이 출범하여 2015년 선거에서 PDP와 경쟁구도를 형성, PDP가 첫 패배하면서 APC가 집권여당으로 부상하였고, 2019년 선거에서도 동일한 구도로 진행

마. 현행헌법 특징 (1999년 전면 개정, 2010년 선거관련 일부 조항 개정)

» 연방정부에 권한 집중

» 1979년 헌법을 직전 헌법으로 규정하여 동 헌법이 근간이 됨을 명시

» 주요 공직자 취임 시 재산 신고 의무화

» 연방수도청의 위상 강화

» 선거직 출마 연령 상한 조정 및 출마 자격 요건 강화

- 대통령(40세), 주지사 및 상원의원(35세), 하원의원(30세)
- 무소속 출마 금지
- 만 18세 이상 선거권 보유[9)]

2 | 상황적 배경, 세력구도 및 정치 행태

가. 상황적 배경(민족 문화)

» 약 250여 민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우사-풀라니(Hausa-Fulani, 요루바(Yoruba), 이보(Igbo), 이죠(Ijaw) 등이 대표적인 민족

» 생활환경에 따라 크게 두개의 지역, 정치적으로는 총 6개 지역(북동, 북중, 북서, 남동, 남남, 남서)으로 구분 가능

- **북부지역** : 사막성 기후 하에서 일부 목초지대를 중심으로 목축업(또는 건조지역에서 자라는 농작물 경작)에 종사 ⇨ 주로 하우사-풀라니(Hausa-Fulani)인이 거주
- **남부지역** : 해안가를 중심으로 겨울철 우기 중 농업에 종사

9) 2011.4월 총선을 앞두고,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음 : ▲ 2011.4월 선거 후에도 선거인 명부 작성을 계속 ▲ 선관위(INEC) 기금 조성 ▲ 선거일자 선택 기준 ▲ 선거비용 상한선 규정

⋯› 남서부에는 요루바(Yoruba), 남부(유전지대)에는 이죠(Ijaw), 남동부에는 이보(Igbo) 민족이 주로 거주

» 각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민족별 지도자 중심의 사고 보유

- 민족 내에서 지도자(Chief, Emir)를 중심으로 구성원은 지도자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며, 지도자는 민족 구성원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책임 보유
- 또한 전통 회교의 영향을 받은 배타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타 민족 또는 민족집단 이탈자에 가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체제 유지(최근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대관계가 약화되긴 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상존)
- 또한 남부의 해안 지대 주민들은 17~18세기경 노예로 팔려가거나 19세기에 서구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족성에도 영향



△ 나이지리아 북부지방



△ 나이지리아 남부지방

» 특히 북부내륙지방은 9세기 이후 보르누(Bornu) 왕국에 이어 19세기에 풀라니(Fulani) 대제국 건설 등 강력한 국가가 성립 발전해온 반면, 남부 해안 지역주민들은 17세기 이후 강력한 정치적 구심점 미비

- 이에 따라 아직도 북부지역 출신이 나이지리아 정치의 중심 세력 구성(민족으로는 하우사-풀라니, 종교로는 회교 및 군부)

나. 세력구도

(1) 지역별, 민족별 구도

» 군부를 배경으로 한 강력한 북부 정치세력의 존재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대대로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최고 통치자를 배출하는데 기여[10]

- 북부지역 : 하우사-풀라니 / 동부지역 : 이보 / 서부지역 : 요루바[11]

» 이러한 북부지역 출신들의 득세 등이 한 원인이 되어 1967년 동부지역의 이보인을 중심으로 「Biafra 공화국」 창설 선언 → 소위 Biafra 내전 발생(1967~1970)[12]

» 한편 요루바 거주 지역(서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자(Moshood Abiola, 1993년 대선)를 배출하였으나, 당시 집권중이던 바방기와 대통령이 선거를 무효화 조치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음. 그 후 요루바 출신인 사업가 쇼네칸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아바차 장군의 쿠데타로 3개월 만에 퇴임

» 1998년 아바차 장군의 사망 후, 군부의 잠정통치를 거쳐 1999년 오바산조 대통령이 요루바 출신으로 대통령 당선

» 2007년 야라두아 대통령이 북부출신으로 대통령 당선, 남부 출신인 굿럭 조나단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으며, 2010.5월 야라두아 대통령 사망에 따라 조나단이 남부출신(Ijaw)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

» 한편 2015년 및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된 부하리 대통령은 북부출신으로 1983~1985년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 이력 보유

10) 1954년에 이미 나이지리아는 종족분포에 따라 3개 지역의 연방체로 구성

11) 그 후 1957년에 서부, 동부지역이 자치 정부를 구성하였고, 이어 1959년에 북부지역이 이를 뒤따르자 1960년 영국은 나이지리아의 독립을 승인

12) 내전의 원인 : 민족·종교적 갈등 및 석유를 둘러싼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보인이 보다 많은 자치권을 요구한 데서 비롯

(2) 정당별 구도

» 2019년 기준 나이지리아선거위원회(INEC, 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에 등록된 정당은 91개이나, 현재 집권당 APC와 야당 PDP가 대표적 정당

① APC(현재 집권당, 전진보당 All Progressive Congress)

⋯› 2013년 여당 PDP에 맞서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4개 야당 ACN, CPC, ANPP, APGA간 연합한 정당으로 2015년 선거를 통해 여당으로 부상

⋯› 오바산조 前 대통령, 아부바카르 前 부통령 등 PDP 소속의 정치인, 상원의원, 주지사 등이 APC로 당적 변경

⋯› 오바산조 前 대통령은 조나단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을 반대했으며, 조나단 정부의 보코하람 대응방식 및 부패 스캔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PDP의 분열과 파벌주의로 주요 정치인들이 APC로 이적

⋯› 2015년 총선 결과 상원 109석 중 60석, 하원 360석 중 225석 확보

△ 전진보당(APC)

② PDP(주요 야당, 국민민주당 People's Democratic Party)

⋯› 원래는 북부에 기반한 엘리트 정당으로서 각계 저명인사, 퇴역 군 장성 및 퇴직 공무원 출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이후 3차례의 선거를 통해 확고한 전국 제일 정당으로 자리잡았고 집권 여당으로 권력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대선에서 처음 패배

⋯› 2007년 선거에서는 대선에서 70% 득표율을 달성하고, 상원의원 109석중 85석, 하원 360석중 263석, 주지사 36석 중 27석을 확보했으나, 나이지리아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평가를 받음. 2015년 총선결과 상원 109석 중 49석, 하원 360석 중 125석 확보

△ 국민민주당(PDP)

⋯› 당원들의 다수가 권력에 따라 당적을 옮겨 다니는 기득권층으로서 대통령의 개혁정책 시행에 미온적이고, 남부-북부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 지속

» 이러한 정당별 구도와 1999년 이후 정착되어 온 민주적 정권교체 관행으로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

- 나이지리아의 정치세력 간 경쟁은 치열하나, 종신 집권을 꾀하지 않는 한 상대 진영 수장의 생명까지는 위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양해가 성립해 있으며, 퇴임 후 형사소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
- 한편 주지사, 국회의원 등 선출직 직위를 둘러싼 후보간 개인적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 후보 간에 폭력을 수반한 충돌이 일상화되어 있고 당적의 변경도 빈번

[나이지리아의 부패(Corruption) 문제]

① 나이지리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저변에는 부패라는 공통요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피지배 경험, 원유생산에 따른 부의 분배, 연방제 구조 등 복잡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음

② 2018년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80개 국 중 144위로 부정부패 문제가 상당한 나라로 평가됨

③ 나이지리아 법에 따르면 정부 관리(public official)는 해외 자산을 소유하거나 해외 은행구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연방도 심각하지만, 주의 부패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지사들은 헌법상 재직 중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함

3 | 독립 후 정부/지도자 연혁

가. 장기간의 군부 통치

» 1958년 런던제헌의회 결과에 따라 1960년 10월 1일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1979년 10월까지 장기간 빈번한 쿠데타와 군부통치가 지속
- 특히 1967년~1970년간 지속된 비아프라(Biafra)내전으로 약 2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 1979년 10월 오바산조 장군이 샤가리 대통령에게의 민정이양으로 미국식 헌법에 의한 민정이 실시되었으나,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민간정부의 정통성 약화, 경제침체, 정부관계 대형 부조리 및 부패 등 쿠데타 여건이 재조성되어 부하리 군사정부(1983년 12월)와 바방기다 군사정부(1985년 8월) 가 재등장

» 바방기다 군사정부의 민정이양 계획에 따라 1993년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요루바인 출신 사업가 아비올라가 사실상 당선되었으나, 당시 군부 실세들이 바방기다 군사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부정선거 등을 구실로 하여 동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바방기다는 선거 무효화에 따른 제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신은 하야

» 짧은 기간 동안의 쇼네칸 과도정부 기간을 거쳐 국방장관 아바차가 1993년 11월 정권을 장악하고 철권통치로 영구집권을 꾀하였으나, 1998년 6월 급서함에 따라 국가원수로 추대된 압둘살라미 아부바카르(Abdulsalami Abubakar) 장군(당시 참모총장)이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바산조 대통령에게 1999년 5월 29일 정권 이양

나. 오바산조의 민간정부 출범(1999년)

» 1999년 5월 등장한 오바산조 정부는 집권 후 과거 군사정부 기간 동안 각료, 주지사 등 주요 정치적 직위를 맡은 경험이 있는 정치군인 및 경찰 122명을 강제 퇴역시키고 군 지휘부 26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전역시키는 등 군부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획기적 조치 마련

» 오바산조 정부는 초기에 농업 개발,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빈곤 극복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분야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 또한, 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해 군사정부 말기에 체결된 모든 공사계약을 중단시키는 한편, 정부발주 계약의 공개입찰제 도입,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인사 적절성 여부 조사, 부패 척결법 입법 등을 통해 정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

» 한편, 군사정부 기간 말기(1994~1999년)에 전체 석유 수입금 중 33%를 확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사회보장 사업을 주도해 온 석유신용기금(Petroleum Trust Fund)을 1999년 6월 폐지하고, 모든 재정출납을 정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방만함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이와 함께, 장기간 개발이 방치되어 온 니제르-델타 지역 개발을 위해 니제르-델타 개발법을 2001년도에 제정, 시행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

» 상기 요인들과 함께 PDP의 압도적인 지위로 인해 2003년 4월 대통령, 국회 상·하원, 주지사 선거에서 1999년에 이어 현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바산조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그러나 야당들은 2003년 4월 선거가 여당인 PDP의 갖은 정치적 협박과 폭력 그리고 광범위하게 펼쳐진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

» 2004년 3월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를 거두어 통치권 전반에 걸친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오바산조 대통령의 경제 및 정치개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 공고화
- 그러나 위와 같은 오바산조 정권의 의욕과 개혁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패와 비능률, 고급 인적 자원 및 자본의 미축적, 민족 및 종교간 대립 등으로 인해 빈곤극복, 사회개혁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 경제개발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침

»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화폐인 나이라(Naira)화의 평가절하, 생필품 가격 상승 등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이 오바산조 前 대통령에 불만 형성

-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군부통치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으며 민주제에 대한 신념이 정착
- 또한, 오바산조 대통령은 후임자인 야라두아 대통령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뒤이어 남부 출신인 조나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부 출신들의 불만 초래

다. 야라두아 대통령 체제(2007~2010년)

» 오바산조 대통령은 2003년 재선에 성공한 후, 3선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지속 부인해 왔으나, 자신의 영향력 존속을 위해 PDP내 북부출신 유력 후보 대신에 존재가 미미했던 야라두아를 지원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옹립하여 당선시키는 데 성공

- 2007년 선거는 나이지리아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평가되고 있으며, 야라두아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건강상 문제와 소극적 자세 등으로 인해 지도력에 의구심을 제기

» 야라두아 대통령은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위협하는 무장단체 발호를 겪고 있던 니제르 델타(Nigeria-Delta)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8년 9월 니제르 델타부를 신설하고 2009년 6월에는 10월까지의 한시적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7월에는 구속중이던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 지도자인 헨리 오카(Henry Okah)를 석방

» 또한 나이지리아의 최대 현안인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획기적 개선 불발

① 전력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 실패
② 빈약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전력 인프라
③ 연방·주·지역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④ 불확실한 사업·투자 환경으로 인한 외국인의 IPP(Independent Power Projects) 참여 기피

라. 조나단 대통령 체제 (2010.2월 권한대행 취임, 2011.5월 민선으로 취임)

» 야라두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신병치료차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내정 공백을 초래

- 이에 2010년 2월 나이지리아 의회는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던 굿럭 조나단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

» 조나단 대행은 권한대행 자격으로 개각을 단행, 야라두아의 측근들을 내각에서 제거하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상대적으로 일천한 중앙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대행 업무를 소화하였으며, 2010년 5월 야라두아 대통령이 사망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공식 승계

» 조나단 대통령은 2010년 7월, 전임자로부터 승계한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자격으로 수도 아부자에서 ECOWAS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2010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여당 북부 인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2011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 조나단 대통령은 2010년 12월 여당 내 북부인사들의 원칙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2011년 1월 개최된 PDP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의원 77%의 지지를 획득해, 아티쿠 아부바카 전 부통령에 우세를 보이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

- 2011.4.16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약 59%를 획득(약 2,250만 표)하고 전국 31개 주에서 최소 25% 이상의 지지를 얻어 2위의 부하리 후보(약 1,221만표, 14개 주에서 25% 이상 득표)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
- 해당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폭력시위로 2011.4월 이후 약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마. 지역안배(Zoning) 원칙

» 1999년 민정 복귀와 오바산조 대통령의 선출로 북부출신 인사들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여당인 PDP의 북부출신 인사들은 북부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당내 지역안배(Zoning) 원칙을 당규에 포함

» 당초 구상된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남부출신과 북부출신이 PDP의 대통령 후보를 4년 주기로 순환하여 맡아야 했으며, 실제로 2003년 대선에는 당시 부통령이던 아부바카르 후보가 PDP의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나, 오바산조가 재차 입후보하게 됨에 따라 지역 간 후보순환 주기가 4년에서 8년으로 변경

» 오바산조에 이어 당선된 북부출신 야라두아 대통령이 임기 4년차 도중에 사망하고 남부출신인 조나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자, 조나단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지역안배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PDP 당내에서 격론

- PDP내 북부/이슬람 인사들은 북부출신인 야라두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기회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대통령 연임을 상정했을 경우 잔여임기 5년은 북부 출신이 맡는 것이 PDP 내부의 지역안배(Zoning)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조나단 대통령의 당내 경선출마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결론

» 지역안배는 지역별 갈등이 심한 나이지리아 국내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장관 및 상하원 의장 등의 주요직위에도 적용

- 제8대 나이지리아 의회(2015~19) 상원의장으로 아부바카르 사라키(Kwara, 북중), 하원의장으로 페미 그바자비 아밀라(Lagos, 남서)를 임명
- 하원의 경우 원내부대표 Buba Jibrin(북중), 원내총무 Alhasan Ado Doguwa(북서), 원내부총무 Pally Iriase(남남)을 임명

바. 부하리 대통령 체제(2015년 5월 취임~현재)

» 부하리 대통령은 2015년 대선에서 조나단 前 대통령과 경쟁에서 야당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달성

- 26개 주 및 수도 FTC에서 25% 이상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나이지리아 최초로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를 달성
- 조나단 前대통령의 대선 패배는 오바산조 前 대통령의 PDP 탈당(2015.2월), 정당 내 파벌 및 언쟁 등 정당운영 실패, 보코하람의 여학생 납치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다만 조나단 前 대통령은 아타히두 제가(Attahiru Jega) 교수를 2010년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제가(Jega) 위원장은 유권자 등록시스템 개선, 선거관리요원 훈련 실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 나이지리아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위한 개혁을 진행한 바, 2015년 선거는 과거 선거에 비해 신뢰할만하고 공정하게 개최된 것으로 평가

» 2019년 대선에서 부하리 대통령이 아부바카르 PDP 후보(前 부통령)에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했으나, 실시 직전 1주일 연기(2.16→23), 부정선거 의혹 및 INEC의 미숙한 선거 진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야당후보 아부바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

- 한편 고령(1942년생)의 부하리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위한 해외체류 등 공백이 잦아지는데 대한 우려도 지속

4 | 주요 정세불안 요소

가. 종교/민족 간 갈등 : 중부 지역

» 나이지리아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종교-민족 간 갈등이 정치적인 대립구도에 의해 촉발되어 보다 극렬하고 폭력적인 지역 내 소요사태로 이어지는 경향

»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서로 다른 종교적/인종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혼합 거주하는 중부 지역(Middle Belt)에서 빈번

- 대표적으로 Plateau주 Jos시에서는 20세기 초반 주석(tin) 광산 노동자로서 대규모 이주해 온 하우사-풀라니인이 증가하면서, 먼저 정착해 있던 기독교 위주의 기타 민족과 빈번히 충돌
- Jos시에서는 2001년 대규모 주민 간 충돌로 1천명이 사망한 이래, 2008년에 300명, 2010~11년초 1,200명 이상이 회교도와 기독교도간 충돌로 희생
- 먼저 정착한 기독교도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오랫동안 Jos지역의 정치를 장악해 왔었으나 소득수준은 낮은 편인 반면, 나중에 이 지역으로 유입한 회교도 (하우사-풀라니)들은 교육수준은 낮으나 경제적으로 부유

나. 북부 이슬람 과격세력 : 보코하람(Boko Haram)

» 2000년 북부의 잠파라주에서 샤리아(회교율법) 재판소가 처음 설치된 이래 북부 12개 주에서는 Sharia가 시행중인 바, 이에 편승하여 북부의 일각에서는 순수 회교국가(Islamic State)의 건설을 주창하며 무장 항쟁 전개

- 그 중심에는 주재국 북동부 로브노주, 보치주 등에 기반을 둔 회교 근본주의 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 : "서구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있으며, 이들은 정부기관, 특히 경찰서 등 치안기관을 대상으로 빈번한 공격을 시도하고, 기독교도 및 온건 이슬람교도의 종교시설 공격
- 보코하람의 경우 이슬람 온건파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를 요인으로 하는 주민 간 충돌과는 구분

» 보코하람이 2009년 7월 북동부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켜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 사건으로 7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010.9월에도 대규모 탈옥사건을 일으켜 다수의 조직원이 탈출, 이후 지속적인 정세불안 야기

- 2010년 자살폭탄테러, 2011년 수도 아부자 경찰청 테러와 아부자에 위치한 UN본부 테러, 2012년 1월 카노주의 경찰서 공격 등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의 전국적인 공격이 발생
- 특히 2011년 6월 16일 수도 아부자의 경찰청 본부에 차량폭탄을 동원한 테러 공격을 감행,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되었으나 보르노주의 치안은 크게 악화
- 보코하람으로 인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700명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3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함. 최근에는 2014년 보르노주 여학생 300여명 납치, 민간인 학살, 2016년 기독교 마을 거주민 학살, 자살폭탄 테러 등을 감행
- 2016년에도 2월 보르노주에서 총기난사 및 방화로 사망자가 발생

» 북부지역은 산업기반이 약하여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대식 교육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높아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이슬람 과격세력의 확산에 따라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 테러 조직과의 연계 우려도 지속

- 2015년 보코하람은 공식적으로 IS에 충성맹세를 하고 서아프리카지부(ISWA)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IS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어 보코하람에 의한 안보불안이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카메룬 및 차드 등 주변국으로까지 확대

-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군 및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으로 보코하람의 세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정세 불안요소로 작용

다. 니제르 델타(Niger Delta)

» 동 지역 무장단체들은 니제르 델타지역 내 다수 원주민인 이조(Igbo)인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결권(Self-determination)과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정부군을 상대로 게릴라식으로 저항

» 2009년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 델타에서 활동하는 반란단체에 대한 사면 정책을 추진, 무장해제와 재교육,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면서, 잔당에 대해서는 군을 동원하여 색출/처벌하는 강경책을 병행

-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석유자원의 유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의 환원 부족, 환경파괴, 상대적 박탈감 등)은 미해결 상황
- 보다 많은 자치권과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이조(Igbo)인들의 요구도 상존

» 다만 2009년 사면정책 시행 이후, 니제르 델타 지역 반군들은 확고한 명분에 기반한 조직적 행동보다 인질 납치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느슨한 범죄조직의 성격으로 점차 퇴화하는 현상도 관찰

- 현재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외국인 납치는 정치적 항쟁이나 테러보다는 만성화된 안전상 리스크로 인식
- 우리나라도 2006~2007년 사이에 대우건설 근로자에 대한 납치사건 3회 발생







외교

1. 외교정책 목표 056
2. 기존 외교정책의 주요 경향 057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062
4. 나이지리아 – 카메룬 국경분쟁 068
5. 對테러 대응 070

IV
외교



1 | 외교정책 목표

가. 헌법상 외교 목표

» 국가 이익의 증진 및 보호

» 아프리카 통합 도모 및 아프리카 공동체 옹호

» 보편적 평화 및 국가 간 상호 존중 강화, 인종 차별 철폐

» 국제법 및 국제조약 의무 준수 및 협상, 중재,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증진

나. 나이지리아 외교정책의 최근 경향

» 1999년 민정복귀 이후 나이지리아의 외교정책은 오바산조 대통령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으며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강대국 지위 점유라는 큰 지향점 아래 민간외교, 경제(실리)외교,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과 평화유지 활동,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추구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를 고수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자유, 독립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등, 아프리카 권익을 대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또한, 테러와 관련한 아프리카 평화유지 및 안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2 | 기존 외교정책의 주요 경향

가.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 유지

» 탈냉전 이후에도 독립이후 견지해온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타국의 내정 불간섭, 제3세계의 주권 및 권익보호, 초강대국 독주에 따른 세계적인 불안 제거 등을 강조

- 2002년도 77그룹 의장국을 수임, 후진국에 대한 외채 탕감, 선-후진국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선진국 협조 확보 등 노력 전개

나. 아프리카 중심의 외교활동 전개

(1) 서부아프리카 지역 주도국 지위 견지

» 나이지리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국가[1]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AU의장국(2004~2005년), ECOWAS 의장국(2009~2011)을 수임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한편, 서부 아프리카 질서를 주도하는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에 관심

- 나이지리아는 2004년에 코트디부아르 사태 해결을 위한 서부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주도해 왔으며, 2010년 12월 ECOWAS 의장국으로서 2차례의 ECOWAS 특별 정상회의 주재를 통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
- 2004년 8월 수단 다르푸르사태 시에도 아부자 AU 평화회담을 주최하는 한편 AU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수단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동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
- 2017년 1월 감비아 대선 관련 ECOWAS 상비군의 일부로서 감비아에 군 병력을 파병

» 나이지리아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아프리카 지역강국으로서 서부 아프리카 정치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라이베리아(1993년, 2003년), 시에라리온(1997년 5월) 사태해결 등 역내 분쟁 해결을 위한 ECOMOG(ECOWAS 평화유지군, ECOWAS Ceasefire Monitoring Group)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편, 나이지리아는 2003년 8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2004년 3월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 Bertrand Aristide) 아이티 전 대통령에게 망명처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분쟁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내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

1]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제일의 인구대국

(2) 아프리카 중시 및 대륙 내 위상 제고 강화 노력

» 나이지리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아프리카 내 외교 강국으로서 아프리카의 완전 자유, 독립의 존엄성 유지, 아프리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유지를 목표로 아프리카 권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

- 안보리 확대개편이 실현될 경우 아프리카지역 대표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진중이며, G-4(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안보리 개편안에 동조

»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 2002년 7월 9일 기존의 아프리카 통일기구(OAU)가 아프리카 연합(AU)으로 개편된 후에도 나이지리아는 AU 내에서 나이지리아의 주도적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견지
  - ···› AU의 전신인 OAU 1963년 발족 당시에도 나이지리아는 본부를 유치하거나 사무총장직을 확보하려고 노력
  - ···› 비아프라 내전을 겪은 나이지리아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아프리카통일기구를 통해 과거 식민종주국인 유럽과 미-소 냉전 체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자적 안보와 경제발전 도모
  - ···› 이를 위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도록 회원국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 추진
- 나이지리아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대하며 아프리카 내의 민족해방운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한 것도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책
- 흑인 정권이 들어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에서의 선두국가 지위를 놓고 다양한 측면에서 남아공과 경쟁 관계

» 또한 아프리카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리더십 발휘를 도모하며, 非아프리카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을 반대

-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해당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되, 국제사회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한정

» 개발 분야에서도 2001년 10월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출범에 적극적 역할

(3) 경제통합 노력 전개

» 1975년 나이지리아는 ECOWAS(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2] 창설을 주도하여, 서부 아프리카지역 15개 국가 상호간 지역 경제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노력중

- 아프리카 내 분쟁은 아프리카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역주의에 따라 ECOWAS를 바탕으로 지역적 군사 협력확대에도 주도적 역할
- 그러나 여타 국가들의 군사력 및 경제력의 한계, 역내 불어권 국가들과의 이견 및 인접국가 상호간의 이해 상충 등으로 ECOWAS가 단기간 내에 지역 군사 및 정치 협력기구로 발전하는 데에는 어려움 내재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단일시장 구성을 통한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설립을 주도

- 다만, 부하리 대통령은 산업계 및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AfCFTA 서명식 (2018.3, 르완다 키갈리)에는 불참

2] ECOWAS 본부(사무국) 및 법원이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소재

다. 경제 실리 추구를 위한 對 서방 외교 강화

» 1999년 민선정부 출범이후 민선정부 출범 계기,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조치 해제, 영연방 회원자격 회복과 더불어,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긴밀화

» 오바산조 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 서방 국가들을 방문, 선진국들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채 탕감을 요청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증진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순방 외교를 전개

» 야라두아 대통령은 외교 측면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전임 대통령에 비해 외국 순방 빈도수가 낮아, 재임 기간 중 서아프리카의 맹주로서의 지도적 역할이 다소 약화
- 부정선거 의혹 및 미국이 추진하던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의 설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시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

» 2010년 5월 조나단 대통령은 ECOWAS 의장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0~11년)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 단기간에 자신의 지명도 및 대외적 입지 공고화

- 권한대행 시절인 2010년 4월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최초로 방문한 이래, 대통령 취임 후인 2010년 6월 캐나다 G-20 확대 정상회의 참석,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 지속적으로 서구 지도자들과 접촉 유지

» 2015년 취임한 부하리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순방하는 등 서구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요르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및 두바이 투자서밋(Investment Summit) 참석 등 적극적 경제 정상외교 행보 전개

라. BRICs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희망하는 BRICs 국가들과 나이지리아간의 양자관계가 긴밀화
- BRICs 국가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인도 등 에너지 자원 확보가 절실한 국가와 나이지리아의 수출입 다변화라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주요원인
- 나이지리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BRICs 국가들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재국의 숙원사업인 전력문제 해결 및 사회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BRICs 국가의 투자가 필요

» 중국과는 전자통신, 자유무역지대 설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받으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원자력 및 우주기술 협력 등 각 국가의 특성을 활용한 양자협력을 진행중
- 2018년 부하리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참석 및 일대일로 협약 체결

3 |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가. 미 국

» 비아프라 내전 이전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내전 중 미국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쟁물자 지원 요청을 거부, 양국관계 소원화
- 그러나 비아프라 내전 종식 후 전후 복구를 위한 미국의 원조 증대로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으며, 1979년 10월 샤가리 정부 출범 후 경제계획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관계 긴밀화

»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발과 생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량수출, 농업발전지원, 기술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나. 영 국

» 나이지리아는 영연방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영국은 경제 관계 등에 있어 특별한 지위를 계속 유지
- 독립 초기에는 영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

» 영·나 관계는 1988년 1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나이지리아 방문, 1988년 3월 양국 간 합동위 개최, 1990년 3월 찰스 황태자 부처의 공식 방문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993년 11월 등장한 아바차 군사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처형하고 1995년 11월 영연방이 나이지리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한동안 관계가 소원

» 1999년 5월 민선 정부 출범 및 나이지리아의 영연방 회원 자격회복을 계기로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야라두아 대통령도 2008년 7월 영국을 방문

» 2010년 조나단 대통령 취임 후에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가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조나단 대통령은 양국의 무역규모를 2014년 말까지 약 80억 달러까지 증대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달성하는 등 경제협력관계를 강화

다. EU 주요 회원국(프랑스, 독일)

» EU와는 1993년 11월 출현한 아바차 군사정부에 대한 EU의 경제제재 조치로 각 분야에서 교류가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99년 5월 나이지리아 민선정부 출범 계기로 EU의 경제 제재조치 해제 등 새로운 전기 마련

» EU는 2011년 총선거에 대규모 선거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나이지리아에 있어서의 선정(Good governance) 정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및 2019년 실시된 대선에도 선거참관단 파견

- 2008년 EU와 나이지리아는 협력 강화와 대화 증진을 통해 EU-나이지리아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9년 'Nigeria-EU Joint Way Forward'를 수립
- ▲ 평화안보, ▲ 거버넌스, ▲ 인권, ▲ 무역, ▲ 지역통합, ▲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개발에 초점을 둔 정치적 대화 확대에 합의하고 고위급 회담 및 장관급 협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함.

» 2008년 EU-나이지리아 장관급 협의 설립 이후 2016년까지 매년 개최(2010년과 2011년을 제외)

- EU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고 대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에 합의
- 2015년 서명한 이주 및 이동에 관한 공동 아젠다(CAMM, Common Agenda for Migration and Mobility)의 이행을 논의하고 나이지리아의 부패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반부패위원회 역량강화 활동 등 지원 공약

» EU 인도지원사무국(EU's Humanitarian Office)은 나이지리아 북부 식량안보 및 영양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며, 보코하람 공격으로 인한 난민 지원

» 프랑스와의 관계는 비아프라 내전 시 프랑스가 비아프라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소원 했으나, 1978년 3월 폰세(Poncet) 프랑스 외상의 나이지리아 방문 및 바방기다 대통령의 방불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호전

- 특히 나이지리아 군사 정부는 對나이지리아 제재조치에 대해 EU국가 중 가장 유연한 정책을 견지해 온 프랑스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야라두아 대통령은 2008년 6월 프랑스를 방문
- 2015년 5월 부하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열어 보코하람 공동대응, 경제발전, COP21 등 양국간 협력관계 유지를 논의

» 독일과는 1963년 3월 기술원조 협정,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8년 6월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서독 수상과 1988년 3월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1992년 2월 바방기다 대통령의 서독 방문, 1999년 12월 오바산조 대통령의 독일 방문, 2008년 11월 호르스트 퀼러(Horst Kohler) 독일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등으로 양국관계가 긴밀화

- 독일은 주재국에서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건설회사인 Julius Berger 등을 앞세워 서구 국가들 중 對나이지리아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2011년 7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방문 시 양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
- 2016년 10월 메르켈 총리는 부하리 대통령의 방독을 초청하여 난민사태, 보코하람 문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라. 일 본

» 일본과 나이지리아는 1964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1990년대까지는 점차적으로 협력을 구축하였으나, 1990년대 양국간 상업교류 및 무역 침체

- 나이지리아에 군사정권이 집권하자 일본정부 역시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제파탄으로 역내로 진출한 다수의 일본기업이 철수

» 1999년 민주주의 회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경협사업 사전 조사단 파견 등 재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
- 특히 2001년 모리 요시로(Mori Yoshiro) 일본 수상이 일본 국가원수 중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오바산조 대통령은 1999년과 2001년, 2004년에 일본을 방문
- 2001년 오바산조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對나이지리아 투자지원 및 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IT 산업 조사단, 투자환경 조사단, 전염병 대책 조사단 등을 파견

» 일본정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무소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개설하고 전력, 보건서비스, 농업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
- 하지만 치안악화로 인해 2012년 이후 주요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부자와 라고스를 중심으로 시행
- 주요 ODA 지원 분야로 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향상, 보건, 기초교육 및 농업 등에 중점

마. 중 국

» 1971년 2월 양국 간 수교 후 기술협력 협정, 통상협정 체결(1972년 11월) 야부쿠 고원 대통령 방중(1974년 9월), 경표 중국 부수상 나이지리아 방문(1978년 10월), 야쿠부 단주마 나이지리아 육군 참모총장 방중(1980년 5월), 황화 중국 외교부장 나이지리아 방문(1981년 11월), 당가선 외교부장 방나(2000년 1월), 라미도 나이지리아 외교장관 방중(2000년 10월) 등을 통하여 우호관계 유지 및 고위급 교류 지속

» 1993년 11월 아바차 군사정권 출현에 따른 미국, EU 등 선진국의 對나이지리아 제재조치로 나이지리아가 고립되자, 중국은 반사적으로 對나이지리아 진출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중국은 중국토목공정집단(Chines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의 나이지리아 철도복구 및 부설 공사 추진(1996년 5억 2천 8백만 달러 계약), 아부자 스타디움 선수촌 건설공사 수주(2000년) 등을 비롯하여 인프라 공사분야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 견지
- 또한,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수만 명이 이미 나이지리아에 거주 중에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많은 점이 문제

» 고위급 인사 교류도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 수교 45주년인 2016년 4월에는 부하리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 나이지리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및 중국공상은행(ICBC)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위안화 송금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합의
- 또한 시진핑 주석은 농업지원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 밖에도 시멘트 플랜트 건설, 태양에너지 발전, 아부자-이바단-라고스 고속도로 건설, 산업단지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약속

» 2018년 부하리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대일로 관련 협력도 지속
- 2019년 2월 주오 빙지안(Zhou bingjian) 주나이지리아 중국대사는 나이지리아의 일대일로 공식 가입을 선언했고, 2019년 4월 주나이지리아 중국대사관에서 일대일로 사진전 개최
-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 나이지리아 각료급 대표단 참석

바. 러시아

» 구소련이 비아프라 내전 당시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나이지리아 군사 정부는 대 소련 접근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샤가리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 정책 채택 및 대서방 접근 정책을 취함에 따라 양국 관계 소원

- 1991년 12월 구소련 해체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구소련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국제적 권리, 의무를 승계 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기존 양국 관계 유지 방침을 밝혔으나,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관계는 활발하지 못함
- 그러나 러시아의 재부상을 바탕으로 자원 부국 간 협력 강화 동향과 함께 드미트리 매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이 2009년 6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원자력 분야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사하라 관통(Trans-Sahara) 가스관 관련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는 등 나이지리아와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2010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원자력 협력, 가스관 건설 및 우주협력(나이지리아 위성 대리 발사) 문제 등을 협의

4 | 나이지리아 - 카메룬 국경분쟁

가. 바카시 반도

» 바카시(Bakassi) 반도는 기니만에 위치한 면적 50㎢, 인구 2만 명의 습지대로서, 석유 및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이 1960년 영국 및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지속중

- 2002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국경을 확정하면서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 소유로 인정하고 나이지리아가 무조건, 즉각 이를 카메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

» 그 후 양국 정부는 공동위를 구성 2004년 9월 15일을 기해 동 지역을 카메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8월부터 5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카메룬이 완전한 영유권을 회복

- 코피 아난(Kofi Annan) 당시 UN 사무총장의 중재 하에 양국 대통령이 2006년 6월 그린트리 협정(Greentree Accord)에 서명하였으며, 나이지리아는 3,000여명의 자국군대를 바카시 반도에서 철수

» 카메룬 외교부는 바카시 반도 영유권 회복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그린트리 협정 서명에 참석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및 UN 등을 대표하는 외교단과 카메룬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양국은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을 표명

- 피에르 음봉조(Pierre Mbonjo)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카메룬 정부는 바카시 반도에 거주 중인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민들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는 처우 제공 약속

나. 차드호 지역(Lake Chad Area)

» 카메룬은 나이지리아 군대 및 주민이 거주[3]하고 있는 다라크(Darak) 지역(차드호 지역 33개 마을)에 대한 영유권 주장

-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해당 지역을 오랜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인이 거주해 왔으며 카메룬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사니 아바차(Sani Abacha) 대통령도 다라크 지역 마을 중 하나인 바마(Bama) 출신이라며 동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

» 카메룬은 동 문제해결을 위해 바카시 반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다라크 지역 영유권이 카메룬에 있다고 판시

3] 약 60,000여 명의 나이지리아인이 거주

» 2004년 7월 양측 공동위원회는 2002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시에 따라 차드 호 지역의 33개 마을은 카메룬으로, 2개 마을(Ndaba-kura지역)은 나이지리아로 양도한다고 발표

다. 나이지리아-카메룬 경계획정 위원회 활동

»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2011년 3월까지) 판결 이후 구성된 양국 간 경계획정위원회는 총 27회 개최되어, 바카시 반도 주변의 378㎞ 길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고, 앞으로 1,600㎞에 이르는 육상 경계선을 2012년까지 확정키로 하고, 세부적 논의를 위한 기술위원회가 2011년 4월부터 작업을 개시

- 또한, 해양 경계획정 이후에 주변해역 및 경계수역에 매장된 원유 등 천연자원에 대하여 양국 간 공동 탐사를 위한 협력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함
- 그 밖에도, 바카시 반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동 해역의 공동순찰 및 검문검색 강화 등 해적퇴치를 위한 공조 강화도 논의

5 | 對테러 대응

» 나이지리아는 경제 및 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10점 만점 중 8.660점을 기록하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테러위협이 높은 국가로 분류

- 2017년 나이지리아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32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기록
- 나이지리아 내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는 카메룬, 차드 등 주변국가로 테러 공격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단순한 활동지역 전환이라는 평가도 존재

가. 보코하람 및 IS 서아프리카 지부(ISWAP)

» 나이지리아 치안에 가장 위협적인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Boko Haram)은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을 본거지로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으며, 북동부지역의 교회나 학교를 겨냥한 폭탄 및 자살테러 자행 중[4)]

» 2015년 4월 보코하람 내 일부 세력이 독립, IS 충성을 맹세하면서 스스로 IS 서아프리카 지부로 천명, 무슬림보다는 교회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테러활동

- 2015년 2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차드, 카메룬, 니제르 등 주변국은 보코하람, 기니만 해적 등의 퇴치를 위한 8,700명 규모의 다국적군(차드의 은자메나 본부)을 창설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코하람 및 ISWAP의 테러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나이지리아는 또한 전 세계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이 주 고객

- 보코하람은 소년들을 납치하여 소년병으로, 소녀들은 보코하람 대원과의 강제결혼을 통해 성노예로 삼거나 강제노동을 부역
- 특히 2014년 4월 북동부 치복의 여학교를 습격,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야기(현재까지 대부분 실종)

4) UN은 2002년 보코하람이 결성된 이후 2만여명 살해(이재민 300만명 상당 발생) 평가

나. 니제르 델타 어벤저스(NDA) 등 남부유전지대 무장단체

» 보코하람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이 집중된 남부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는 NDA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해당지역의 치안상태가 원유생산에 지대한 영향

-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등 반군 세력이 석유 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
- 2016년 이후에 등장한 니제르 델타 어벤저스(NDA, Niger Delta Avengers)라는 최신 반군세력이 니제르 델타지역의 석유생산 설비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경제재원인 석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 켄디 아데오선(Kendi Adeosun) 재무장관도 해당 신생조직의 활동이 석유생산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인(BBC 뉴스, 2016년 6월)
- 2014년에 결성된 IPBO(Indeginous People of Biafra)는 최근 이보족 근거지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정부과 갈등 지속(2017년 9월 주재국은 동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

»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이 지역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

다. 풀라니(Fulani) 유목민 출신 무장세력

» 풀라니 무장조직은 나이지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민병대로, 나이지리아 중부지역의 목초지와 관개시설을 놓고 남부지역과 대립해온 이슬람계 단체

» 세계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는 나이지리아 풀라니 출신 무장세력을 보코하람(Boko Haram), ISIL, 탈리반(Taliban) 다음으로 세계에서 위협적인 테러조직으로 평가

- 2014년에 사망자가 1,229명으로 급증, 2018년에는 2,0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목초지 감소, 주재국 정부의 해결책 마련 실패로 인해 갈등이 지속 고조





경제

1. 개관 076

2. 경제 전망 및 개발 전략 078

3. 에너지자원 보유 및 관련 산업 현황 081

4. 건설 산업 085

5. 통신 산업 086

6. 전력 산업 087

7. 통상환경 088

V

경제



1 | 개 관

가. 경제 개요

» 나이지리아는 세계 원유보유량 11위, 천연가스 보유량 10위이며,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대국 중 하나

»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특성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농업, 금융 등 非석유부문 산업 성장으로 연평균 6%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 -1.54%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경험

» 2017년 3월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ERGP :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2017~2020)'을 발표하고 단기적 경기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 중

• ERGP 계획에는 ▲ 경제회복과 안정(재정/금융/대외수지), ▲ 성장세 회복(6개 분야 중심 경제 다각화), ▲ 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기업환경 개선), ▲ 포용적 성장(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내용이 포함

나. 주요 경제동향

» 2004년까지 6~7%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 2.7%, 2016년 -1.54%를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반등, 경제 다각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17년 0.83%, 2018년 1.93% 성장 등 완만한 회복세

» 2013~2015년간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자국 화폐 평가 절하,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7년 1월 18.7%까지 상승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향 전환하였으나, 식품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19년 3월 11.25% 상승 등 아직까지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 중

2013년 이후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목 GDP(억 달러)	514.97	568.50	494.58	404.65	375.75	397.28(IMF)
GDP 실질증가율(%)	6.67	6.31	2.79	-1.58	-1.58	1.93
1인당 GDP(실질, 달러)	2,475.95	2,563.09	2,562.52	2,455.92	2,412.2	2,049(IMF)
1인당 GDP(PPP, 달러)	5,696.06	6,008.1	6,070.99	5,882.06	5,887.17	6,027(IMF)
소비자물가상승률(%)	8.5	8.05	9.01	15.7	16.5	12.1
기준 금리(%)	12	13	11	14	14	14
외환보유고 (억 달러, 연말 기준)	429	344	290	258	388	431
공식 환율(나이라/달러, 연말 기준)	155.2	167.5	196.5	304.5	305.5	306.5

※ 자료 : 세계은행(WB),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자료 재구성

2 | 경제 전망 및 개발 전략

가. 경제 전망 종합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GDP, 물가, 무역, 외환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호전되며 전반적으로 회복하였으며, 산업다각화 정책 등에 따라 비오일 부문의 성장률도 연중 확대

- 2017년 3월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ERGP :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2017-2020)'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및 장기적 지속가능 정책을 적극 추진

2016~2020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ERGP)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1.54	2.19	4.8	4.5	7.0
1인당 GDP(USD)	2,300	2,542	2,640	2,731	2,854
실업률(%)	14.20	16.32	14.51	12.90	11.23
물가상승률(%)	18.55	15.74	12.42	13.39	9.90
오일가격(USD)	38	42.5	45	50	52
오일생산(mbpd)	1.7	2.2	2.3	2.4	2.5

※ 자료 :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안(2017), 17p 재구성

» 2019년에도 국제유가 안정,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거시경제 전반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비오일 부문 성장도 보다 가속화할 전망

- 다만,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변화,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 금리 인상 등과 대내적으로 정세 및 치안 불안 등 리스크가 상존

나. 각 부문별 최근 현황 및 전망

» 경제 성장

-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 산업다각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1.93%를 달성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2019년에는 비오일 부문 성장, 환율 관리,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2% 초반)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유가 변화, 정세 및 치안 안정 여부 등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1)]

» 물 가

- 2018년에는 통화 긴축,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12.1%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4%p 감소하는 등 하락세 유지
- 2019년에는 1분기에 긴축 통화정책 유지, 정세 안정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4월 최저임금 인상(18,000나이라/월 → 30,000나이라/월)[2)],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10% 내외 상승 전망[3)]

» 환 율

- 2016년 5월 변동환율제 도입이후 급등하였던 시장 환율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달러 유입 등으로 공식 환율과 오픈마켓 환율이 달러당 각 305나이라, 360나이라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
- 2019년에도 중앙은행의 엄격한 관리로 작년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전망

» 외환보유고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감소하였던 외환보유고는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1) (2019년 GDP 성장률 전망) IMF 2%, WB 2.2%, AfDB 2.3%, 무디스 2.3%
2) 1불 = 306.20 나이라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9.1월)11.37% → (2월) 11.31% → (3월) 11.25%

2019년 4월 현재 450억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4)]

» 2019년에는 대선 이후 불확실성 감소, 정부의 외국투자 유치 노력,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국가 발전 전략

» 개 관

- 나이지리아는 1999.5월 민선정부 등장이후 왜곡된 경제제도 개선, 청렴한 정책 시행,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안정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
- 2008년에는 '나이지리아 비전 20:2020(Nigeria Vision 20: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GDP 9천억 달러 달성, 1인당 연소득 4천 달러 달성을 통해 세계 2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성과 목표를 제시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목표달성 실패
- 2017년 3월 부하리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기(2017~2020)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4년(2017~2020)간 평균 4.6% 경제 성장률 달성 목표를 제시

» **경제회복 및 성장 정책(ERGP)** :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탈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오일 증산, 비오일 정부 수입 증대, 국가 주요 재산 매각을 통한 정부 재정 수입 확대,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 경제에서 오일에 대한 편중 현상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건설 부동산, 광업 등 지원을 통한 산업 다각화 적극 추진
- 전력, 교통 등 인프라 확충,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사회 통합 달성

4] 외환보유고(억 달러) : (2014년) 344 → (2015) 290 → (2016) 258 → (2017) 388 → (2018) 431

3 | 에너지자원 보유 및 관련 산업 현황

가.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1) 개 관

» 2017년 기준, 석유 375억 배럴(세계 11위), 천연가스 183조 7천억 입방피트(세계 10위)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

» 석탄 등 기타 광물자원도 풍부하나, 탐사/개발 및 생산은 답보 상태

(2) 원유 및 천연가스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2017년		물량	점유율(순위)	
			세계	아프리카
원유	확인매장량	37.5 billion barrels	2.2%(11)	29.6%(2)
	생 산 량	1,988 thousand b/d	2.1%(13)	24.6%(1)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83.7 trillion cubic feet	2.7%(10)	37.7%(1)
	생 산 량	47.2 billion cubic meter	1.3%(17)	21.0%(3)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연도별 생산량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유(천b/d)	2,280	2,278	2,204	1,903	1,988
가스(bcm)	34.4	42.8	47.6	42.6	47.2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연도별 수출량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유(천b/d)	2,193	2,120	2,114	1,737	1,811
가스(bcm)	28,266	24,543	26,777	26,703	25,146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3) 기타 광물 자원

» 나이지리아는 광물자원의 소유권을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40여종 이상의 다양한 광물이 매장

» 1960~1970년대에는 주석, 컬럼바이트, 석탄 등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국제 광물 가격의 하락과 국가적 차원의 석유 개발 집중 현상 등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광물자원 개발 활동이 급격히 감소

» 그러나 최근 석유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광물자원 개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광업공사 사업 일부의 민영화 및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주요 보유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역청, 철광석, 납-아연, 석회석, 중정석, 금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석고, 주석, 대리석 등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

- 석탄 : Enugu주 및 Kogi주 등을 중심으로 30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확인 매장량은 6.4억 톤)
- 역청(Bitumen) : Ondo주, Edo주 등을 중심으로 발견되었으며, Ondo주 에서만 약 160억 배럴 매장 추정
- 철광석 : Enugu주, Kogi주, Niger주 등에서 발견된 매장량은 30억 톤을 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약 100억 톤 매장 추정
- 납-아연 : Enugu주 등 10여개 주에 1,000만 톤 매장 추정, 확인매장량은 중동부 지역의 5백만 톤
- 석회석 : 남서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3조 톤 매장 추정
- 중정석(Barite) : Bauchi주, Taraba주에서 7백만 톤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채광 가능 매장량은 약 15백만 톤 추정
- 금 : 주로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1백만에서 최대 2억 온스까지 매장 추정
- 기타, 우라늄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매장량 및 매장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 진행 중

나. 에너지 관련 사업 현황

(1) 원유 사업

» 2017년 기준, 일일 199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일일 25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증산 계획 추진 중

- 잠재 석유매장량은 최대 600억 배럴로서, 이중 해상에 360억 배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해안 지대인 나이저강 삼각주에 분포[5)]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존 나이저강 삼각주의 육상광구 개발에서 최근에는 치안 등의 이유로 기니만의 심해광구 개발을 중점 추진 중
- 주요 유전은 쉘, 엑슨모빌, 쉐브론, 토탈 등 다국적 석유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5) 원유는 API 등급 21 ~ 45 의 저유황 경질유로 고품질 원유로 인정

생산 원유의 대다수는 북미·유럽 지역으로 수출

» 향후 전망

- OPEC의 감산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17년 이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고, 2020년까지 일일 250만 배럴 생산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생산량 지속 증대 전망

» 석유정제

- 현재 4대 국영 정유공장이 44.5만 배럴의 명목 정제능력을 보유(Port Harcourt I과 II가 각각 6만 배럴 및 15만 배럴, Warri 와 Kaduna가 각각 12.5만 배럴 및 11만 배럴)
- 시설 노후화, 유지관리 능력 부족, 파업, 전력 부족 등으로 정유공장 가동률이 지난 10년간 연 평균 20% 이하이고, 실제 일 평균 정유량은 6~8만 배럴인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휘발유 등 정유 수요의 약 70%는 수입으로 충당

(2) 천연가스 사업

» 아프리카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나, 인프라 부족과 비현실적인 가스 가격으로 소각되던 가스를 세계시장에서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국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상용화하려는 노력 진행 중

» 2020년 소각률 0%를 목표로 노력 중으로 2006년 36%에서 2017년 12%까지 감축하였으며, 2019년초 가스 상업화 프로그램(Nigerian Gas Flare Commercialisation Programme) 시행을 위한 입찰 시작

»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을 위해 1989년도 NLNG(Nigerian Liquefied Natural Gas Limited) 설립하여 연간 2천만 톤의 LNG를 생산하여 아시아, 유럽 국가로 수출 중

4 | 건설 산업

가. 개 관

» 나이지리아 건설 산업의 대부분은 석유, 천연가스 사업에서 확장된 플랜트, 인프라 건설에 치중

»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는 주로 민관합작투자산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추진, 우리기업은 주로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하역 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건조 사업 등을 수주하여 시공

나. 석유/천연가스 분야 플랜트

»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 생산은 비용절감, 치안상의 이유로 해상 심해 광구 개발이 주로 추진되고 있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하역 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해양플랜트, 원유 및 가스 운반선, 가스 생산 수송 등의 사업 수주 추진

» 또한 부족한 정유 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정유공장 개보수, 석유화학 시설 및 비료 공장 등의 건설 등 추진 중

» 특히 원유를 수출하고 정유를 수입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원유 생산 중심의 상류부문(Upstream) 개발 이외에도 원유를 정제, 가공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Downstream)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인 관심

- 하류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계 석유회사가 신규 유전을 개발할 때, 하류부문에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패키지 딜 정책을 추진 중

다. 교통 등 인프라 건설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 3월 국가 통합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 중

» 향후 30년간 인프라 확충 비용이 3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인프라 분야 전망은 밝으나 대부분 민관합작투자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이 필요

5 | 통신 산업

»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위원회(NCC, 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폐쇄적이고 정체되었던 통신사업부문의 개혁을 위해 지난 2001년, 통신시장 전면 자유화 정책을 시행

» 나이지리아의 주요 통신사로는 Airtel, Etisalat, Globacom, MTN, Visafone, Multilink 등이 있으며, 2013년에는 통신사간 번호이동 서비스 시행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확대되어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

» 2018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정보통신 산업은 전체 GDP의 12.44%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약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

-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 추이에도 도시와 농촌간 통신 서비스 접근율의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6 | 전력 산업

» 전력 현황

- 나이지리아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전력 생산 및 보급률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 12,500MW의 발전 용량 설비를 보유 중이나, 발전 시설의 노후화와 발전용 원료 부족으로 실제 전력 생산량은 약 4,000MW 수준
- 전력 송·배전 시 전력의 50% 이상이 손실되어 전력 생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력보급 구조

» 전력 사업 및 투자

-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해 2013년 11월 기존 발전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영 전력 공사 소유 6개 발전소와 11개 배전회사를 민영화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독립발전 프로젝트(Nigeria Independent Power Project) 발전소 10개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
- 2017년 3월 주재국 정부는 전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여 전력 분야 투자 확대, 전력 공급 능력 확대, 전력 분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 중
- 부족한 전력의 공급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발전소의 민영화, 신규 투자자금의 유치를 통한 민간 발전소 건설 등 전력설비 확충을 적극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검토 필요

7 | 통상환경

가. 대외무역 환경

(1) 관세장벽 및 수입 부과금

① 수입관세(Import Duty) : 0%~35%
②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5%
③ 부과금(Surcharge) : 추가분담금(Levy), 물품세(Excise Duty)

- 추가분담금(Levy) : CIF[6]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별 적용 (예, 자동차 최대 35%, 쌀, 담배 및 설탕 최대 60% 등)
- 물품세(Excise Duty) :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20%로, 11종에 대해 부과(예, 향수 및 화장품 5%, 맥주 20% 등)
- 항구발전기금(Port Development Fee) : 수입관세(Import Duty)의 7%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분담금(ECOWAS Levy) : CIF 가격의 0.5%
- 검수비용(Inspection Fee) : FOB[7] 가격의 1%

»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통상 및 대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 중으로, 관세는 원유 판매 수입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 수입원

» 나이지리아의 수입 관세는 5단계로 구분

- 관세율 0% : 필수품(교육자재 등)
- 관세율 5% :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
- 관세율 10% : 중간재
- 관세율 2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관세율 35%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담배, 철강, 맥주, 음료수 등)

» 특히 2014년 7월 1일부터 해외 기업 현지화 유도를 통한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 실시

- 완성 승용차 : 70%(duty 35%, levy 35%)
- 완성 상용차 : 35%(duty만 적용)
- 완성 트랙터 : 0%
- 완성 그린카 : 35%(duty만 적용)
- CKD(Completely Knock-Down) 부품 수입 : 0%
- SKD(Semi Knock-Down) I 부품 수입 : 5%
- SKD(Semi Knock-Down) II 부품 수입 : 10%
- 현지 조립 설비 장비 : 0%
- 타이어 수입 : 25%(duty 20%, VAT 5%)
- 타이어 생산 기계·장비 수입 : 0%

(2) 수입 환경

»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며, 높은 관세 장벽 및 면세물품의 제한적 통관 절차, 수출입 통합 환경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는 무역 활성화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

- 특히, 투명하지 않은 수입품 검사 절차와 높은 관세율, 잦은 정책 변동, 나이지리아 세관 및 각 부처 간의 규정 해석 불일치 등이 해외 기업들의 對나이지리아 무역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
- 또한 고질적인 항만 적체 및 긴 통관 절차, 하역비용, 세관 부패, 밀수 등도 나이지리아의 수출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6]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7]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3) 직접 수입규제

»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24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고시

-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 돼지고기/소고기 및 그의 가공품
- 새의 알(계란 등)
-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
- 코코아(코코아 페이스트, 분말, 케이크, 코코아 버터 등)
- 스파게티, 라면
- 과일주스(소매 포장)
-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에너지, 건강 음료는 제외)
- 포대 시멘트
- 의약품(HS Code 3003, 3004류 14개 품목)
- 폐 의료용품
- 비누 및 세제
- 모기(퇴치)향
- 재생 및 중고 타이어(* 트럭용 타이어 일부 품목은 제외)
-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 빈 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 중고 압축기,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및 냉동고
- 중고 자동차(제조연도 기준 15년 초과)
- 볼펜
- 토마토 페이스트 또는 농축물

»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 목적으로 수출금지 품목도 지정

- 2018년말 기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 수출 금지 품목





군사

1. 국방정책 목표 094

2. 국방조직 / 지휘체제 095

3. 군사력 096

VI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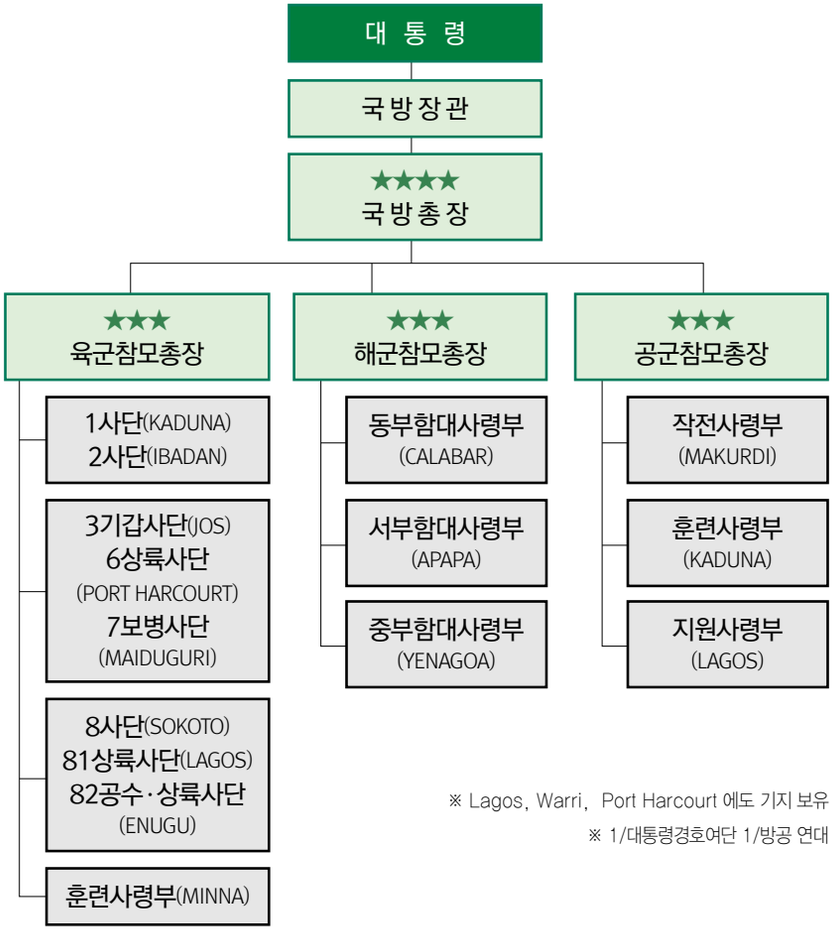
1 | 국방정책 목표

» 국토 보전과 독립 유지

» 역내 상호 협력 및 집단 안전 보장

»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및 안전 보장

2 | 국방조직 / 지휘체제



※ Lagos, Warri, Port Harcourt 에도 기지 보유

※ 1/대통령경호여단 1/방공 연대

※ 장교, 사병 모두 지원제 채택

※ 군 조직 / 장비체계는 영국식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Biafra 내전(1967~1971년) 시기 舊소련의 군사지원을 받은 후 일부 舊소련식 병기체계와 군사훈련 방식을 적용

※ 육군은 1, 2, 3사단(기갑), 81사단(상륙), 82사단(공수 · 상륙), 7사단(보병), 6사단, 8사단

※ 해군은 동부 · 중앙 · 서부 등 3개 작전사령부와 군수사령부, 훈련사령부 등으로 구성

※ 공군은 전술 · 기동 · 훈련 · 군수사령부 등으로 구성

※ 국방정보본부, 국방우주본부, 국방사관학교, 국방대학, 지휘참모대학 등은 3군 통합 운영

3 | 군사력

각 군별 인원 및 장비 현황

육군	병력	62,000명			
		장비명	보유수	장비명	보유수
	장비	전차 정찰차량 견인포 로켓포 지대공 미사일	292대 이상 452대 94문 25문 이상 16기(Roland)	경전차 장갑차 자주포(155mm) 박격포 장갑회수차	157대 507대 이상 39문 330문 이상 17대 이상
해군	병력	8,000명(해안경비대 2,000명 포함)			
		장비명	보유수	장비명	보유수
	장비	프리깃 함 초계함 연안 정찰함 기뢰함 연안 전투정	1척 1척 3척 2척 1척	고속 경비정 초계정 해안 수륙양용정 지원/기타선박 헬기	30척 73척 5척 10척 5대
공군	병력	10,000명			
		장비명	보유수	장비명	보유수
	장비 *전투기능 보유 : 78대	전투기 전자정찰기 급유기 전술정찰기	14대 2대 32대 105대	공격용 헬기 수송용 헬기 무인항공기 공대공 미사일	11대 23대 이상 1대 이상 미상(AA-2)

※ 자료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2016), The Military Balance 2016, IISS

» 경찰/민방위 조직 보유 장비

- 장갑차 : 74대 이상
- 수송기 : 4기
- 수송용 헬기 : 4기







사회·문화

1. 민족 구성 100
2. 인구 101
3. 언어 102
4. 종교 102
5. 노동 103
6. 보건 104
7. 빈곤 106
8. 교육 106
9. 언론 110
10. 문화 111

VII
사회·문화



1 | 민족 구성

» 나이지리아는 공식적으로 약 250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 민족인 하우사, 풀라니, 요루바 및 이보가 68%를 점유하며 인구규모나 정치적 경쟁 구도에서 주요 축을 차지

- 하우사(Hausa) 및 풀라니(Fulani) 29%, 요루바(Yoruba) 21%, 이보(Igbo) 18%, 이조(Ijaw) 10%, 카누리(Kanuri) 4%, 이비비오(Ibibio) 3.5%, 티브(Tiv) 2.5%, 누페(Nupe) 및 에도(Edo)가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는 10대 민족
- 공식적으로는 250여개 민족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민족집단 관련 통계에 대해 정부나 학계 모두 일치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민족집단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다양한 측면도 있으나, 나이지리아의 정치문화에서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나이지리아 최대 민족인 하우사인은 대부분이 회교도로 주로 북부지역에 거주하며 오랜 군사정부 기간 동안 집권층을 형성해 옴. 요루바인은 남서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회교도로 절반씩 구성됨. 남동부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인은 1967년 비아프라(Biafra) 분리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가톨릭이 강세

» 독립초기 나이지리아의 주요 민족인 요루바 민족의 지도자이자 저명한 정치가였던 오바페미 아올로오(Obafemi Awolowo)는 나이지리아의 현실을 아래와 같이 진단

- "나이지리아는 국가가 아니다. 단지 지리적인 표현일 뿐이다. 영국인, 프랑스인, 웨일즈인과 같은 의미에서 나이지리아인은 없다. 나이지리아인 이라는 말은 단지 나이지리아라는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지시적 호칭에 불과하다."

» 나이지리아 헌법의 연방제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민족별 할당제를 기반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어, 동일 학력자더라도 북부 출신들이 나이에 비해 일찍 고위직에 진출

2 | 인구

» 나이지리아 인구는 약 1.9억명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인구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7위의 인구대국

- 라고스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역과 카노(Kano)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인구 비율이 절반 이상(약 50.3%) 차지

3 | 언어

» 나이지리아에는 에스놀로그(Ethnologue) 2017년 집계기준, 52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프리카 최대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어 및 교육언어로는 영어 사용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하우사어(Hausa), 이보어(Igbo), 요루바어(Yoruba), 풀풀데어(Fulfulde), 카누리어(Kanuri) 등이며, 그 중에서도 3,300만 명 이상의 가장 많은 인구가 하우사어를 사용
- 하우사어는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소코토(Sokoto), 카두나(Kaduna), 카트시나(Katsina), 카노(Kano) 등 북부지역에서 주로 사용

4 | 종교

» 나이지리아 종교는 전체 인구의 50%가 이슬람교, 40%가 기독교, 나머지 10% 정도가 토착신앙으로 구성

» 북부지역의 이슬람교와 남부지역의 기독교가 중요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토착신앙은 여전히 존재하나 감소추세

- 1999년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정권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북부 12개 주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의한 통치 시행
- 요루바와 이보를 중심으로 한 남부 기독교인들이 이에 반발하며 중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유혈사태가 자주 발생했으며, 특히 북부지역의 하우사-풀라니인과의 갈등이 빈번
- 지역별로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종교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 북부 지배계층에서는 이슬람교가 정치·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부 지식인은 거의 기독교인으로서, 남서부는 성공회나 감리교 등 개신교가, 남동부는 가톨릭이 주류를 형성
- 나이지리아의 이슬람교 및 기독교는 단일교리가 아니라, 토착신앙에서 유리한 세계관과 신념을 반영하여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으며 일부다처제 같은 기존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
- 나이지리아 정부가 북부지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공집회나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남부의 기독교 신자들이 중부지역의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및 외국인 선교사들 또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 종교적 갈등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예산배정에서도 문제가 되어어. 예를들면, 이슬람 신자들의 성지순례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게 기독교 신자들의 예루살렘 성지순례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배정할 것을 주장

5 | 노동

» 전체 인구는 세계 7위(아프리카 1위)인 약 1.9억 명이며, 이중 30세 미만이 50% 이상이고, 노동가능인구는 약 9천만 명(2018년 3분기 기준)

- 그러나 빠른 인구성장과 노동시장 진입인구의 확대로 노동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 실업과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이 확대되는 추세

» 석유산업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한계

-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은 비공식 분야의 일자리

이며, 임금고용(Wage employment)은 부진한 반면 소규모 자체고용(Self-employed)이 증가 추세

- 대다수의 산업 근로자는 저임금의 비숙련공으로서 고용이 불안정하며 이직률이 높고 보통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수준 보유

» 최저임금은 2011년 18,000나이라/월로 인상된 이후 2019년 4월 30,000 나이라/월로 인상

» 사회보장제도

- 연금제도(Contributory Pension Scheme) :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금기금에 근로자 월급의 각각 10%와 8%를 납부(연금개혁법)
- 산재보험(Employee Compensation Scheme) : 고용주들은 업무 관련 사고·사망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년 급여비용의 1%를 국가사회보험 신탁기금에 납부(산재보험법)
-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 고용주들은 근로자 기본급의 2.5%를 공제하여 1개월 이내에 연방모기지은행에 송금(국민주택기금법)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Scheme) : 직원이 1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 및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제공이 가능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급의 각각 10%, 5%를 납부(국민보건법)
- 산업교육기금(Industrial Training Fund) : 고용주들은 연 급여비용의 1%를 산업교육기금에 납부

6 | 보건

» 나이지리아의 보건관련 정책개발 및 규제, 3차 병원 등을 연방보건부(FMOH, Federal Ministry of Health)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1~2차 병원은 각 지방자치구역(LGAs, Local government areas)에서 담당

- 그러나 지역자치구에 할당되는 예산비율이 가장 낮아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

» 높은 전염병 발병률과 열악한 기초보건 체계로 인한 보건지표 악화

- 2015년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814명(사하라이남 547명), 1세 이하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74.3명(사하라이남 60.8명),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은 117.4명(사하라이남 91.2명)으로,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모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을 크게 웃돌며, 특히 모성사망은 전 세계 모성사망의 14%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말라리아는 나이지리아 공공보건의 최대과제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위기에 처해 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주요 사망원인
-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06.6명으로 사하라이남 평균(73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WHO는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연간 경제성장률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17년 WHO 추산으로, 특히 치안이 열악한 보르노주에서 매주 8,500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조사
- 매년 상반기 라싸열 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도 전국에서 324명이 라싸열 확진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에서 응급상황을 선포하였고(Emergency), WHO와 공동대응을 통해 전염세가 줄어들었으나, 72명이 사망하여 치사율 22%를 기록
- 특히 남부지역에서 2017, 2018년 말 황열병이 유행하였음.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00여 명이 발병하였으며, 감염자 중 29세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58%) WHO에서는 도시 인구밀집 지역의 전염 예방을 위한 집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중

» 2014년 기준 정부의 보건부문 지출은 8.2%로 2000년 5.9%에서 증가했으며, 1인당 보건비 지출은 2000년 17달러 대비 약 7배 증가한 118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8년 보편의료보장(UHC)에 입각한 국가보건발전전략계획(NSHDP) II의 출범과 함께, 매년 중앙정부 예산의 1%와 주정부 예산의 2%가 보건 재정에 할당되기 시작

7 | 빈곤

» 2019년 9월에 발표된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다차원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는 0.291을 기록하여 2017년 0.303보다 다소 완화

- 인구의 50.9%가 다차원빈곤에, 30%가 심각한 다차원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북부지역은 인구의 80%가 다차원빈곤에 처해있어, 지역간 생활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

8 | 교육

» 나이지리아 교육은, 연방 교육부(FM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36개 주 교육부(SMOEs, State Ministries of Education), 연방수도지구 교육사무국(Federal Capital Territory Education Secretariat), 774개의 지방정부 교육청(LGEAs, Local Government Education Authorities) 등이 관할

»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교육행정, 운영, 시행을 위해 국가교육정책(NPE, National Policy on Education)을 국가지침으로 수립

- 1969년 개최된 국가교과과정 회의(National Curriculum Conference)에서 나이지리아 분야별 대표, UNESCO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식민시대 학제 등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 1977년 나이지리아 군사정부에 의해 마련된 1차 국가교육정책은 영국 식민시대의 6-5-2-3 학제를 6-3-3-4 학제로 변경했으며, 1981년, 1988년, 2004년, 2007년 등의 개정을 거쳐, 2013년에 5차 개정 실시
- 나이지리아 정부는 1976년 9월 보편적 초등교육(UPE,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을 도입하고 무상 초등교육 의무화를 실시했으며, 1999년에 기초교육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UPE에서 보편적 기초교육(UBE, Universal Basic Education)으로 다시 개편
- 2012년에는 유아교육도 기초교육으로 포함되면서 1-6-3-3-4 학제로 변경되었고, 0~14세 아동 및 청소년을 기초교육의 대상으로 함. 0~4세의 유아교육을 제외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기초교육과정은 무상으로 제공

» 그 외,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11개년(2009~2020년) 국가계획인 나이지리아 비전 20:2020은 교육분야 목표로 인종, 성별 및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기초교육 보장을 추진

나이지리아 교육 관련 기관

기관	주요역할
보편적기초교육위원회 (UBEC, Universal Basic Education Commission)	보편적 기초교육 시행 관련 사항 조정
국가대학위원회 (NUC, National Universities Commission)	대학 교육 프로그램 승인, 감독 및 대학 설립 인가
국가시험위원회 (NEC, National Examinations Council)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시험 시행
서아프리카시험위원회 (WAEC, West African Examinations Council)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시험 시행
국가상업 및 기술시험위원회 (NABTEB, National Business and Technical Examinations Board)	국가기술/상업자격시험 등 기술 관련 분야 시험 시행
국가기술교육위원회 (NBTE, National Board for Technical Education)	폴리테크닉, 기술대학 등 국내 기술 교육 기관 설립 및 교육 내용 승인, 감독, 규제
국가교육대학위원회 (NCCE, National Commission for Colleges of Education)	교사 양성 주관
공동입학허가위원회 (JAMB, Joint Admission and Matriculation Board)	대학교, 폴리테크닉, 교육대학 입학시험 시행
국가교육연구개발위원회 (NERDC, 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교육연구 진행 및 교육 문제에 대한 데이터 제공으로 국가교육 개혁 뒷받침

※ 자료 : 권유경 외(2016), 2016 아프리카 국별연구시리즈-나이지리아, p.117

»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NTC, NCC 등) 소지, 대학입학시험(UME) 또는 모노테크닉·폴리테크닉·교육대학 과정(MPCE) 합격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 고등교육과정에 진학 가능

» 고등교육기관은 국가대학위원회(NUC)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립 및 사립 대학이 있으며, 보통 학사 4년, 의예과, 수의학, 치의학, 공학, 법학 등은 5~6년 과정으로 이수

- 교원교육의 경우, 3년간의 교육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자격증(Certificate in Education)을 취득해야 교사임용이 가능하며, 기술과 상업분야는 기술교사학교(Technical Teachers' Colleges) 과정을 별도로 운영

2019년 나이지리아 대학랭킹 현황

랭킹	대학명	소재지
1	University of Lagos	Lagos
2	University of Ilorin	Ilorin
3	Ahmadu Bello University	Zaria
4	Obafemi Awolowo University	Ile-Ife
5	University of Nigeria	Nsukka
6	University of Ibadan	Ibadan
7	Covenant University	Ota
8	Federal University of Technology, Minna	Minna
9	Landmark University	Omu-Aran
10	Rivers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rt Harcout

※ 자료 : UniRank, http://www.4icu.org/ng/(검색일: 2019.4.23.)

» 교육언어는 공용어인 영어로 이루어지며, 학령 외 학생들은 문해교육 및 비정규교육(Mass Literacy, Adult and Non-Formal Education) 실시

» 초등과정의 취학률 감소, 낮은 중등과정 진학률, 높은 비정규과정 비율, 낮은 문해율 등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중 교육 수준은 낮은 편

- 초등과정 취학률(Gross Enrollment)은 2006년 101.67%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84.70%로 하락했고, 학령 내 취학률(Net Enrollment) 또한 2005년 66.57%에서 2010년 64.10%로 소폭 감소
- 지속적인 문해율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인(15세 이상) 문해율이 1991년 56%

에서 27년 간 오히려 4% 하락하는가 하면, 성인여성의 59%가 문맹 상태이며, 청소년(15~24세) 문해율 또한 1991년 71%에서 2008년 66.38%로 하락하는 등 오히려 악화

9 | 언 론

» The Guardian, This Day, Daily Trust, The Punch, Premium Times 등 20여종의 일간지와 News watch, Tell, Times International 등 20여종의 주간지를 발행하는 등 약 100종의 언론지 출판

나이지리아 주요 일간지

신 문 명	발행부수	창 간	발행지	성향 및 특성
The Guardian	160,500	1983	라고스	나이지리아 최대의 지성지로서 영향력 다대
This Day	150,500	1995	라고스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 중 하나로서 대체로 비판적 논조
Daily Trust	120,000	1998	아부자	주로 북부 시각을 반영
Vanguard	120,000	1984	라고스	중립적
The Punch	100,000	1973	라고스	중립적 신문이나 스포츠 등 오락적 내용위주
Daily Times	100,000	-	라고스	정부기관지 역할을 하나 대체로 중립적이며, 주식의 60%가 정부소유
Nigerian Tribune	80,000	1949	이바단	남서부 지역 기반
New Nigerian	80,000	1966	카두나나	북부 시각 중심
The Champion	80,000	1988	라고스	친정부적
Business Day	50,000	2001	라고스	경제 전문

나이지리아 주요 주간지

신 문 명	발행부수	발행지	성향 및 특성
News watch	6만부	라고스	행정시책에 대한 비평중심 정치 경제지
Times International	3만부	라고스	Daily Times 발간 정치, 경제지
Tell	5만부	라고스	비판적

※ 자료 :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africa-13949549

» 국영방송은 Nigerian Television Authority(TV 방송)와 Federal Radio Corporation of Nigeria(라디오) 및 국영통신사인 News Agency of Nigeria(NAN)가 있으며 AIT, Silverbird TV, Channels TV 등 사설 방송국도 상당수 운영

- 각 주는 대부분 독자적인 라디오 및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라디오 등)과 SNS 사용이 급격히 확대중
- BB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10만 명의 나이지리아인이 페이스북을 사용중이며 BBC 하우사어 페이스북 페이지도 인기

10 | 문 화

»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의복은 남성용 셔츠 부바(Buba), 하의 소코토, 전통모자인 필라(Fila)와 아베티아자(Abeti-aja) 등과 여성용 부바(Buba), 원피스 형태의 카바(Kaba), 하의 이로(Iro), 모자인 겔레(Gele) 등을 착용



△ 나이지리아 전통의상

» 대표적인 주식은 쌀, 기장(Millet), 렌틸(Lentile) 등에서 15세기 이후 카사바(Cassava)로 확대되었으며, 민족별로 관습과 종교에 따라 다양한 식문화 발달

- 현재 나이지리아는 세계 최대 카사바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이 4,500만 메트릭톤(M/T)으로 35개 이상의 품종 재배
- 대부분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콩, 수수(Sorghum), 현미를 기반으로 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가리(Gari)로 만든 덤플링(Dumpling), 호박, 참마(Yam) 등을 즐김. 요루바인이 거주하는 남서부와 중부에서는 오크라(Okra)를 곁들인 가리와 시금치 스튜를 주로 먹고, 기니만 해안지역에서는 해산물 스튜, 참마, 쌀, 야채를 주식으로 하며 생선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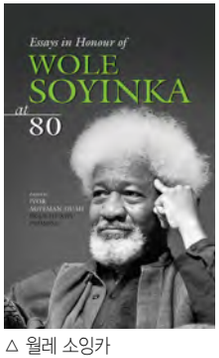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의 전통가옥은 민족별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진흙집으로 목재 지붕이나 초가지붕을 사용하는데 주로 직사각형 모양의 컴파운드에 같은 혈통의 다세대가 거주하는 형태가 대부분



△ 나이지리아 전통가옥

- 19세기 이후 교회와 유럽인들의 거주지가 건설되면서 유럽 및 남아메리카 양식의 건물이 빠르게 증가

» 나이지리아 요루바인 출신 월레 소잉카(Wole Soyinka)는 1986년 '해설자'라는 소설로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65년 '길', 1965년 '콩기의 추수', 1984년 '거인들의 연극', 1972년 '사람이 죽다: 소잉카의 교도소 기록' 등의 작품을 집필



△ 월레 소잉카
(Wole Soyinka)

»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지리아 음악가 故 펠라쿠티(Fela kuti)는 미국의 블루스·재즈·펑크를 전통적인 요루바 음악과 융합시켜 독특한 아프로비트(Afro-beat)라는 아프리카풍의 현대 음악을 만들어내 수많은 아프로비트 음악추종자들을 만들어내었고, 매년 10월이면 전세계에서 'Felabra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기념하는 축제 개최



△ 펠라쿠티





한국과의 관계

1. 외교관계 116

2. 양국 교류 현황 118

3. 재외국민 현황 134

VIII
한국과의 관계



1 | 외교관계

가. 한-나 관계 일반

» 나이지리아는1979년 10월 민간정부 출범이전까지는 친북노선을 견지하다가 1980년 2월 한국과의 수교 이후,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외교를 유지코자 노력한 바 있으나,사니 아바차(Abacha) 군사정부를 중심으로 북측에 치우친 외교정책 노선을 간헐적으로 채택

» 그러나 1999년 5월 민선정부 출범과 2000년 7월 오바산조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증진을 유익하고 긴요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우리의 대 나이지리아 투자확대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큰 기대 표명

» 우리의 외교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입장을 지지하는 편

- 다만, 유엔 안보리 개혁 이슈 관련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나이지리아는 G-4(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확대개편안에 대해 적극적 찬성입장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우리측과 입장 상이
- 또한,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었으나 비동맹 중립기조의 영향도 잔존

»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여 의지 천명

- 동 이니시어티브에는 ▲ 2008년까지 ODA 규모 3배로 확대 ▲ 개발경험 공유 ▲ 의료보건 체계 개선 ▲ 인적자원개발 지원 ▲ 경제개발 지원 ▲ 협력체계 정례화 ▲ 국제기구와의 개발사업 적극 참여 ▲ 무역역량 지원/통상규모 확대를 위한 최빈국에 대한 무역 혜택 제공 등이 포함

» 2006년 10월 오바산조 대통령의 2번째 방한 시 한·나이지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등이 이루어지는 등 2006년 양국 정상 상호방문 실시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나이지리아 국내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발효

» 우리정부는 나이지리아를 2011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인적자원 개발,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ogy)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15년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등과 함께 다시 제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시한 2017년 對나이지리아 ODA 규모는 약 74억 원 정도로, 2개의 프로젝트와 3개의 초청연수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공공행정, 농촌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

» 또한 한국-나이지리아 간 문화 및 예술, 관광, 교육, 여성문제와 청소년 개발, 문화콘텐츠 산업,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문화교육협력 협정 체결(2013년 7월)

나. 외교 연혁

1960. 12.12	한국, 나이지리아 승인
1980. 2. 22	수교
1980. 3. 24	한국상주공관 설치(대사대리: 홍순영 공사)
1980. 8. 5	신기흠 초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1. 3. 5	임동원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2. 4. 19	Balewa 주한 초대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84. 11. 20	Sada 2대 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85. 4. 19	노창희 3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8. 1. 29	오채기 4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8. 4. 29	Guobadia 주한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87년 12월, 상주 대사관 설치)
1991. 1. 31	조명행 5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91. 7. 19	Onobu 제2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94. 4. 15	안종구 6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96. 4. 26	이동진 7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99. 4. 16	정문수 8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99. 5. 21	Falola 제 3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0. 2. 24	Akpong Ade Obi Odu 제 4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2. 4. 26	박신웅 제 9대 대사 신임장 제정
2004. 4. 30	김동원 제 10대 대사 신임장 제정
2004. 9. 1	Abba Abdullahi Tijjani 제 5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6. 3. 28	이기동 제11대 대사 부임
2008. 4.	Desmond Akawor 제 6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9. 3. 9	박영국 제12대 대사 부임
2011. 9	최종현 제13대 대사 부임
2014. 12	노규덕 제14대 대사 부임
2017. 12	Amin Dalhatu 제 7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18. 2	이인태 제15대 대사 부임

2 | 양국 교류 현황

가. 주요인사 교류

(1) 방 문

1960~74	8회에 걸쳐 친선사절단 파견
1978. 4	태완선 상공회의소장 방문(상공, 광업소장 Olubanjo와 경협위 의정서 서명)
1979. 10	주코트디부아르 한우석 대사 방문(수교 교섭)
1980. 5	양윤세 동자부 장관 비공식 방문(원유공급 교섭)
1981. 4	윤자중 교통부 장관 비공식 방문(코트라 주최 상품전시회 개막식 참가)
1981. 11	노태우 정무 장관 대통령 특사자격 방문
1982. 2	노신영 외무부 장관 공식 방문
1982. 8	전두환 대통령 공식방문
1983. 5	황영시 육군 참모총장 방문
1983. 12	최동규(동자부장관) 특사
1984. 6	민속무용단(36명) 방문
1984. 12	강경식(대통령 비서실장) 특사
1985. 7	정호용 육군 참모총장(Babangida 면담)
1986. 8	이원경 외무부 장관 방문
1986. 11	아프리카 민간 무역사절단 방문
1987. 4	남재희 대통령 특사 방문
1987. 9	경협기금 실무조사단 방문
1989. 5	이동호 재무 차관(제25차 AFDB총회 참석차)
1989. 6	산업설비 수출촉진단(곽정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외 16명)
1989. 12	한-나 공동위 제 2차 회의(이두복 외무부 중동아국장)
1990. 7	투자현황 조사단(이계석 한국 자동기기 사장 외 10명, Benue주 초청)

1991. 5 정원식 대통령 특사 방문
1994. 5 노영찬 대통령 특사 방문
1998. 5 섬유직물시장개척단 방문(홍순균 조합상근부이사장 외 10명)
1998. 10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방문(일주산업 등)
1999. 3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방문(섬유시장개척단 인솔)
1999. 4 정몽준 FIFA 부회장 방문(제10회 청소년 축구대회 참관)
1999. 5 최광수 대통령 특사 방문(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조합 부이사장 외 14명)
1999. 10 신흥시장 조사단(김창엽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제2심의관)
2000. 5 이의근 경북도지사 방문(경상북도 시장개척단 인솔)
2001. 4 2010 여수박람회 유치교섭 사절단(단장 : 배상길 대사)
2002. 10 2010 여수박람회 유치교섭 사절단(단장 : 허승 대사)
2002. 5 민관합동 플랜트수주단(단장 : 김재현 산자부 무역정책실장)
2002. 6 민관 통상투자사절단(단장 : 외교통상부 오영환 아태통상 심의관)
2002. 7.14~20 AALCO(아시아 · 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총회 대표단 (단장 : 신각수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2002. 9 임인택 건교부장관 대통령특사(2010 여수박람회 유치교섭)
- 오바산조 대통령, 마두에체 교통부장관, 아부바카르 건설부차관 면담
2003. 8 아프리카 지역 섬유직물류시장 개척단(단장 : 중소기업청 조시용 벤처기업국장)
2003. 9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단장 : 김칠두 산자부 차관)
2004. 5 부산시 아프리카 시장개척단(9개 회사 합동)
2004. 9 경북 칠곡군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2005. 3 산자부 원자력산업 담당 과장 일행
2005. 7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유전분야 및 전력분야 사장단 일행
2005. 9 세계 일류화 시장개척단
2005. 11 경북도 시장개척단
2006. 3 노무현 대통령 공식방문
2007. 7 여수박람회 지지교섭단(단장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2007. 9 오현섭 여수시장외 28명
2007. 12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 2차관외 12명

2009. 5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2010. 9 정운찬 대통령 특사(전 국무총리) 독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2010. 12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2011. 5 최병국·이범관 특사 Jonathan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13. 3 정의용 前의원(외교장관 특사)
2014. 4 신학용 한-나 의원친선협회장
2015. 5 이주영, 박대동, 이노근 의원(대통령 특사)
2016. 7 권희석 아중동국장
2017. 2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2019. 4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사업 대표단
2019. 5 이주영, 백재연 의원(한-나 의원친선협회) 주광덕 의원(한-튀니지 의원친선협회)

(2) 방 한

1975. 1 Pater Uchbuak(나이지리아 人) OAU 사무총장 방한
1977. 10 G. A Ally 나이지리아 항만청장, Azomade 통상장관 비공식 방한
1977. 11 Daily Times 편집국장 Peter Osugo 방한
1978. 10 The Punch지 편집국장 Sola Odunda, 한국 무역협회 초청 방한
1979. 7 The Punch지 Molu Adedorm회장 방한
1979. 7 G. A. Ally 항만청장 방한
1979. 12 나이지리아 경제인단(단장 : Oluteye장군) 방한(제2차 한-나 민간경제협력위 합동회담 개최)
1980. 8 Chuba Okadigba 대통령 특보(特補) 방한
1980. 10 Y.Akintola 하원 공업분과위원장 방한
1980. 10 O.I.Obashi 하원 건설위원장 방한
1981. 2 Audu 외무부 장관 공식 방한
1981. 4 Gusau 농림부 장관 공식 방한
1981. 5 Ugoh 기술부 장관 공식 방한

1981. 5 Daily Times사 지배인 Osugo 방한
1981. 7 하원 농림위 소속위원 15명 방한(단장 : Ejiba 농림분과 위원장)
1981. 7 Garba Wushishi 교통담당 국무상 비공식 방한(현대, 대우 주선)
1981. 8 상공인연합회 사절단 방한
1981. 8 IG. Auda 상원 수자원위원회장 및 소속위원 방한
1981. 8 M. M. Agwai 상원 농임분관위원회 및 소속위원 방한
1981. 9 O. Akande 국방차관보, 국군의 날 행사 참석
1981. 10 M. J. Waziri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
1982. 3 John O. Omlodun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82. 6 Musa, 대통령 비서실장
1982. 10 Wushishi 육군참모총장
1983. 7 Galtimari 광업전력부 차관
1983. 10 Ademari IOC 위원
1983. 12 Bello 외무부 국제기구 및 경제담당차관보
1984. 3 군사사절단으로 '마만' 육군 작전참모부장 등 방한
1984. 6 사회경제연구소 Dr. C.S. IPE(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협조)
1984. 9 Alhaji Shehu Musa 한-나 친선협회 회장외 2명(SITRA 관람)
1984. 10 '콘타고라' 육군공병감 방한, 국군의 날 참석
1984. 10 '커피' 국방 차관 일행 방한
1985. 4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Dr. Obiozor 방한
1985. 5 National Concord지 편집국장
1985. 7 Alhaji 국가기획부 차관 외 10명(제1차 한·나 공동위 참석차)
1985. 8 Obasanjo 전국가원수 부부 방한
1985. 9 Daily Times 논설실장 John Araka 방한
1985. 10 청년운동 연합회(NYSC)회장 AKPAN 방한
1985. 10 나이지리아 통상사절단 18명 방한(단장 : Ogunnusi 수출협회장)
1985. 11 Garba 주유엔대사 방한
1986. 5 Afolabi 외무부 경제차관보 방한

1987. 1 S. Musa 한-나 친선협회장 방한(1987년 2월에도 방한)
1987. 3 Ahmed 중앙은행 총재 방한
1987. 3 Olusanya 국제문제연구소(NIIA)원장 방한
1987. 5 Aleyideino 조폐공사 사장 방한
1987. 6 Balewa 외무부 아프리카 차관보 방한
1987. 7 Abacha 육군 참모총장 방한
1987. 9 Ajibola 법무장관, Bello 대법원장 방한(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참석)
1987. 9 Omuth소장(지휘참모부장) 및 Kanu준장(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국군의 날 행사참석
1988. 1 Aliyu 공업부 차관 등 중소기업 협력단 방한
1988. 2 Abacha 육군총장, Kalu 교통장관, 아국 대통령취임 경축특사로 방한
1989. 4 Otobo 건설차관(제11차 국제도로연맹 IRF총회의 참석차)
1989. 6 Stifel 국제 열대농업 연구소(IITA) 소장
1989. 8 Nwachukwu 외무부 장관 공식 방문
1990. 7 육군장교 2, 공군 3, 교육훈련차 50일간 방한
1991. 8 Ige 체신부 장관 공식 방한
1991. 9 Williams 교통부 차관(女) 비공식 방한
1991. 11 내각사무처 시찰단(단장 : Abam 내각사무처장) 방한
1993. 9 Olubi 무역부 장관 방한(EXPO 참가)
1994. 4 Abubakar 합참의장 방한
1994. 5 Oloko 국방대학원장 등 16명 방한
1996. 10 Nwobodo 체육부 장관 방한
1998. 3 Akande 공업부 장관(女) 방한(투자보장 협정체결)
1998. 7 Garuba 국방대학원장 및 국방대학원생
1999. 11 Smith 경찰 청장(인터폴 총회 참석차)
2000. 2 Banigo 과기부 장관
2000. 5 Cole 대통령 외교담당 특보
2000. 6 Williams 연방수도청(FCT) 차관, Adegboye 가계획위원회(NPC) 위원 (특별연수 참가)
2000. 7 Obasanjo 대통령 국빈방문(7월 21일~22일)

2001. 2 J. A. Obafemi Olopade 대통령 개인고문
2001. 5 Haruna Elewi 통신부 국무장관
2001. 6 상원 해상운송위 위원단(단장 : Martins-Yellowe 위원장)
2001. 6 Kashim Ibrahim-Iman(상원) 및 Esther Udehi(하원)대통령 의회연락 보좌관
2001. 7.2~14 상무부 J. Ogbole 대내무역국장(KOICA 무역투자과정 연수)
2002. 4.21~25 대통령 영부인 Stella Obasanjo 여사(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나이지리아 유조선 명명식 참석) - 이희호 여사 예방
2002. 4 Ibrahim Mantu 상원 부의장 일행 - 이만섭 국회의장 예방
2002. 5.6~10 Danbatta 전력철강부 차관(Perm. Sec.)(KOICA 아프리카 파트너쉽 과정 연수 참가)
2002. 6 한일 월드컵 참관 정부사절단
- Steven I. Akiga 체육사회개발장관, Dubem Onyia 외교부 국무장관, Garuba Ali Madaki 주택건설부 국무장관, D. T. Oyelade 체육사회개발부 차관, James Ibori 델타(Delta)주 주지사, Lucky Igbinedion 에도(Edo)주지사, O. Adeniyi Adebayo 에키티(Ekiti) 주지사 등
2002. 6.11~15 상무부 E. I. Ogbile 대외무역국장(KOICA 특별연수 참가)
2002. 9 Bello 상무장관 - 신국환 산자부 장관 예방
2003. 2 Maduekwe 교통부 장관 일행
2004 .6 외교부 Ariyo 아주국장 일행
2005. 2 Isoun 과학기술부 장관 일행
2005. 3 Adeniji 외교부 장관 일행
2005. 5 Daukoru 대통령 석유/에너지 특보 일행
2005. 9 대구 자동화 기기전 바이어단
2005. 11 Aliyu 교통부 국무장관 일행
2005. 11 Nnamani 상원의장(비공식)
2006. 11 Obasanjo 대통령
2007. 1 Tanko 외교부 제2장관
2007. 10 Patience Jonathan 주재국 부통령 부인
2008. 1 M.I Shekarau 카노주 주지사
2008. 3 Nwankwo 주재국 철도공사 사장
2008. 9 Olatunde Emmanuel Odusina 가스부장관
2008. 10 Sarafa Nwankwo 철도공사 사장
2009. 6 ALIYU Ikra Bilbis 정보통신부국무장관
2010. 7 Abdullah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2010. 8 H. Odein Ajumogobia 외교장관 및 기업인단
2010. 9 Aganga 재정부 장관 KOAFEC 참석
2010. 10 Anjorin 재원배분/재정위원
2012. 3 Jonathan 대통령, Ashiru 외교장관, Aganga 통상투자부 장관, Nnaji 전력부 장관(핵안보정상회의)
2012. 7 Ortom 통상투자부 국무장관(여수세계박람회)
2012. 10 Ashiru 외교장관(제3차 한-아프리카포럼), Aganga 통상투자부 장관
2013. 4 Ekweremadu 상원부의장
2013. 11 Edem Duke 문화관광부 장관
2014. 5 Ihedioha 하원부의장
2014. 7 Viola Onwuliri 외교부 국무1장관(제5차 한나 공동위)
2016. 2 Mrs. Aisha Buhari 영부인(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명명식 참석)
2016. 3 Adamu 교육부장관, Shittu 통신부장관(전자정부 역량 강화사업 KOICA 연수)
2016. 5 Ali 관세청장 방한(아프리카 고위급초청 무역 원활화 세미나 참석)
2016. 8 Sirika 교통부 항공국무장관
2018. 8 Mrs. Aisha Buhari 영부인(개인 일정)

나나. 경제관계

(1) 교 역

한 · 나이지리아 교역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교역 규모	4,474	1,809	986	2,622	1,966	-25.0%
對나 수출	1,378	686	461	2,122	918	-56.7%
對나 수입	3,096	1,123	525	500	1,047	109.3%
무역 수지	-1,717	-438	-64	1,622	-129	-108.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 우리나라의 對나이지리아 무역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억 7천만 달러(54위, 아프리카 국가 중 4위)로 전년 동기대비 25.0% 감소

- 2017년 수출액에 선박(2013년 수주한 Egina FPSO) 수출액(16.7억 달러)이 일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2018년 무역 규모 감소

» 2018년 對나이지리아 수출은 9억 2천만 달러(58위, 아프리카 국가 중 6위)로 전년 동기대비 56.7% 감소

- 경유(21.6%), 등유(17.6%), 합성수지(11.7%)가 전체 수출액의 50.9%
- 2017년 수출액에서 선박 수출액 제외 시(약 4.5억 달러)에는 오히려 100% 이상 증가

» 2018년 對나 수입은 10억 5천만 달러(47위, 아프리카 국가 중 3위)로 전년 동기대비 109.3% 증가

- 원유 및 천연가스가 전체 수입액의 86.8%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동괴, LPG, 연괴, 알루미늄 등이 주요 수입 품목
- 천연가스, 동제품, LPG 등 주요 수입품이 감소하였으나, 원유 수입이 급증(+6.8억 달러)하여 수입금액 증가

對나이지리아 수출 상위 5대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비고(2017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 계	918,198	-56.7	2,121,967	360.5
1	경유	198,302	935.5	19,150	-76.5
2	제트유 및 등유	161,725	·	0	·
3	합성수지	107,358	-5.3	113,355	17.7
4	기타석유화학제품	76,614	36.7	56,056	11.3
5	공기조절기	58,840	1,503.5	3,669	9.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對나이지리아 수입 상위 5대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비고(2017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 계	1,047,331	109.3	500,438	-4.7
1	원유	677,089	·	0	-100.0
2	천연가스	232,235	-23.0	301,582	51.4
3	동괴 및 스크랩	74,355	-20.6	93,621	44.3
4	LPG	39,074	-34.5	59,611	-45.3
5	연괴 및 스크랩	8,448	-53.3	18,080	-25.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2) 우리 기업의 對나이지리아 진출

» 2018년말 기준, 교민기업 22개, 지·상사 설립 기업 9개 등 총 31개의 한국 기업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

- 진출 형태는 판매법인,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등으로 구분

» 1974.6월 두산산업개발, 유리 용광로 건설(14만 3천 달러)로 첫 진출

- 수주 총 누계는 2018년 말 기준 106건 수주, 132억 달러 규모
- 진출초기인 70년대, 80년대에는 주로 도로, 주택 등 단순 공사 위주
-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플랜트와 석유생산시설, 발전소 등 고부가 가치, 기술기반 건설 분야 위주로 진출
- 최근에는 해상광구 개발에 따라 유전 및 가스 개발 관련 수주(FPSO, LNG선 등) 및 전력 발전소 민영화에 따른 발전소 건설 수주에 관심

» 주요 진출 업체

- 대우건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 ⋯› 대우건설 : 가스처리시설 및 비료공장 건설 사업
  -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 원유, 가스 산업 관련 플랜트 건설
  - ⋯› 한국석유공사 : 심해 OPL321/323광구 사업(2019.4월, 현재 철수 협의중)
  - ⋯› 삼성전자, LG전자 : 가전제품 판매

현지 진출 지상사 목록(2018년말 기준)

구분	기업명	진출형태	업종
지상사	대우건설	생산법인	건설업
	삼성중공업	생산법인	건설업
	현대중공업	생산법인	건설업
	LG전자	판매법인	도소매
	삼성전자	판매법인	도소매
	한국석유공사	지사	공공기관
	한국전력	생산법인	공공기관
	제일기획	지사	기타
	판토스	지사	기타

» 주 對나이지리아 동반 진출 유망 분야

- 석유 및 가스 시설 관련 건설 분야 : 석유광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석유생산, 처리 및 수송과 관련된 건설 수요가 있는 바, 해상원유생산저장시설(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등 고부가 가치 건설 분야가 유망
- 非석유분야 : 전력망 확충(IPP 건설), 도로(교통마스터 플랜), 철도(경전철 등), 통신망 구축(전자정부 등), 상하수도 처리, 광업 분야 등 유망

(3) 투자

»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투자는 광업(누적 투자액의 52.9%)과 제조업(32.3%)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적 투자현황은 139건, 3억 198만불(2018년말 기준, 수출입은행)[1)]

- 對나이지리아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원유 및 건설 플랜트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

(4) 개발협력

» 2006~2017년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양자 간 원조규모는 총지출 기준 약 450억원(40.14백만불)(2019.4월, 수출입은행 통계)

- KOICA를 통해 지원한 무상원조가 90%이상이며, 농촌진흥청 등 타 시행기관의 지원도 일부 존재

» 우리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2011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을 중점으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였으나, 2015년에 제외

- 기존 26개국중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카메룬, 동티모르, 솔로몬 군도)이 제외되고

1) (對나이지리아 투자 분야) 광업(1억 5,967만불), 제조업(9,754만불), 정보통신업 (1,980만불),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18만불) 등

탄자니아, 세네갈,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

가) 대외무상원조(KOICA)

» 1991~2018년간 KOICA의 對나이지리아 원조규모는 총 4,441만불이며, 주로 프로젝트, 연수생초청사업에 지원이 집중

- 2008년 KOICA 사무소 개소 이후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여 2018년 KOICA는 3건의 프로젝트 및 연수생초청사업 등 총 413만불 지원

» 1991년 KOICA 설립 이후 연수생 초청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1963~1990년 간 새마을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에 125명이 참가하였으며 1991년 KOICA 설립 이후 2018년까지 단기과정 및 석사과정 연수에 약 1,200명을 초청

KOICA 대 나이지리아 지원 내역(1991-2018)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10건)	농산물 가공센터 지원사업 ('07~'10/ 107.94만불)
	나이지리아 베누주등 6개지역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08~'09/ 109.5만불)
	나이지리아 미곡처리 기술지원 ('08~'10/ 172.65만불)
	나이지리아 초등학교 교실확충사업 ('08~'09/ 115.3만불)
	나이지리아 국립 소아병원 건립사업 ('10/ 13.52만불)
	나이지리아 초등학교 건립사업 (아다마와, 곰베주) ('10~'13/ 301.2만불)
	나이지리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0~'14/ 389.43만불)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사업 ('13~'19/ 856만불)
	나이지리아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 ('13~'19/1,500만불)
	나이지리아 UNFPA 보르노주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성생식 보건 및 젠더 강화사업 ('18~'21/ 500만불)
소규모무상원조	19건 203.98만불
연수생초청	1,200명 901.14만불
전문가	2명 1.81만불
태권도	1명 7.69만불
국제기구협력	7건 175.98만불

나) 대외유상원조(EDCF)

»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대외유상원조는 2건으로, 모두 철도차량에 지원

- 한국은 1987년 1,000만 달러 규모의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을 1차로 추진했으며, 1991년 대외경제협력기금 1,500만 달러를 '기관차 현대화사업'에 2차로 지원

다. 협정체결 현황

1982. 8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89. 8	해운협정
1998. 3	투자보장협정
2006. 11	이중과세방지협정(상금 미발효, 한국은 2007.5월 비준)
2013. 7	문화·교육협정
2018. 8	무상원조 기본협정

라. 인적, 문화 교류

(1)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인적 교류

»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보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나이지리아인의 수가 더 많은 편

» 현재 한국내에는 이주 노동자와 소규모 무역상 등이 주한나이지리아 교민회를 구성하여 활동중
- 나이지리아인의 국내 체류자수는 2,185명으로 파악(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18년 말기준))
- 한국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인은 대부분 새로운 교역 상품을 발굴하여 나이지리아 무역상들에게 소개하거나 소규모로 독자적인 무역에 종사

»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470명으로(2019년 4월 기준), 주로 라고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기업 소속 주재원이나 독자적 사업 종사자가 다수
- 나이지리아 내 한인들은 열악한 치안 상황으로 현지인과의 교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 현황

» 한국과 나이지리아간 문화교류는 2008년까지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으며,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을 계기로 나이지리아 전통예술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가진 이래 다년간 문화교류는 제한적 수준 유지

» 그러나 2008년 9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기 위해 문화원장이 부임하면서 양국 간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 ▲ 국경일 계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사진전(2008년 10월 2일), ▲ 국경일 행사시 국립남도국악원 전통 문화공연(2009년 9월), ▲ 제1,2회 한국 대사배 서부아프리카 국제태권도 대회(2009년 12월 및 2010년), ▲ 수도 아부자 지역 20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한국 이미지 그리기 대회(2010년 4월 및 2011년)

» 2010년은 한국과 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간 문화교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2010년 5월 24일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원
- 개원식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문화관광부장관과 연방수도부 차관, 상원외교위원장 등 주재국 주요 인사와 외교사절들 참석
- 개원식에서 남원민속국악원, 비보이, K-tigers, wHool 등 4개팀 40명의 한국 공연단과 나이지리아 국립공연단 20명이 합동 공연 실시
- 문화원 전시관에는 '한국 유명 도자기 작가 10인 초대전'이 수연 갤러리와 한국문화원 공동 주최로 2010년 5월 24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개최
- 2010년 6월 나이지리아 국립미술관 주최로 서울국제교류재단 전시관에서 33명의 나이지리아 현대미술전이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과 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개최
- 2010년 8월 '제1회 한국영화제' 개최(아부자) 이후 매해 개최
- 2015년 10월 '제 1회 한-아세안 영화제', 2017년 4월 19일 '제2회 한-아세안 영화제' 개최

» 2010년 9월 한-나 수교 30주년 및 나이지리아 독립50주년 축하 상호공연
-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부 공연단 내한공연(국립극장)
- 한국 국 립국악원 공연단은 방문공연(아부자 힐튼호텔)

» 민간차원 교류 지원
- '가나화랑' 주최로 나이지리아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회(2010년)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월레 소잉카(Wole Soyinka)가 대상문화재단 초청으로 방한

» 2015년 나이지리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최대 규모의 한국문화축제를 5일간 개최
- 국경일 리셉션, 한국 전통공연, 한국음식 판매, 한국-나이지리아 풍물사진전, 한국영화제 등 종합적인 한국문화 체험의 장 제공

» 2015년 10월 K-POP월드 페스티벌에서 나이지리아 팀 Pacific Stars 대상 수상
- 2017년까지 3년 연속 한국본선에 진출, 2016년에는 댄스부문 최우수상 수상 쾌거

» 2017년 4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지원으로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내 한류 체험관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첨단 시설을 갖춘 세련된 문화원으로 도약

» 2017년 7월 10개국이 참가하는 제1회 아시아영화제 참가 및 2018년 12월 9개국이 참가하는 제2회 아시아영화제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

»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행사를 개최, 참가선수들의 감사영상 상영
-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하는 나이지리아 봅슬레이팀과 스켈레톤 팀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 나이지리아 올림픽위원회 회장을 비롯, 많은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속에 성황리 개최

» 2018년 11월 국경일 행사 계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희문의 '한국남자'를 초청, 한식 체험 및 드라마 영상 상영과 함께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해 한국 국경일 행사가 아부자의 인기있는 한류축제로 위상 공고화

» 2019년 4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 주제로 시쓰기 대회 및 유관순 기념 공연 상연, 사진전 등 풍성한 행사 개최

3 | 재외국민 현황(2019.4월 기준)

» 총 470여 명의 재외국민 거주
- 대사관 관할 지역 교민 : 60여명
- 라고스 분관 관할지역 교민 : 410여명[2)]

2) 남부 라고스, 포트하코트 등 우리 기업 근로자가 360여명이며, 수주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







북한과의 관계

1. 외교관계 138

2. 주요 인사 교류 140

3. 주요 협정 체결 143

4. 경제관계 144

5. 주요 단체 145

IX

북한과의 관계



1 | 외교관계

가. 나이지리아의 對북한 외교 기조

» 북한은 나이지리아의 독립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군사정권 시기 긴밀한 교류 등의 상호 협력 역사를 보유

» 나이지리아는 우리(1980년 2월, 수교)보다 앞서 1976년 5월 북한과 수교하였으며, 1977년 4월에 주 북한 상주 대사관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

» 비동맹·중립 외교 노선을 표방하며 북한과 함께 비동맹그룹 및 G-77 소속

» 국내문제 외국 간섭 배제, 제3세계 주권 보호 외교 기조에 입각, 남북한 문제 등 제 3국간 갈등·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 입장 표명은 자제

» UN 안보리 결의 준수 입장을 표명하나, 북한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하여 강력한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소극적

나. 외교 연혁

1976. 5.26	수교
1977. 4	북한 상주 대사관 개설(대사 : 송관조)
1978. 8.21	신임 주북한 나이지리아대사(북경 상주) 파울 마니네스크 신임장 제정
1983. 4	2대 북한대사 한덕일 부임
1983. 10	3대 북한대사 박원철 신임장 제정
1987. 7	4대 북한대사 김완수 신임장 제정
1988. 1	주북한 나이지리아 상주대사관 개설
1991. 1	5대 북한대사 안경현 부임
1991. 7	2대 주북한 상주대사 Olugbunga Ashiru 신임장 제정
1995. 2	6대 북한대사 최상범 신임장 제정
1998. 3	7대 북한대사 리인석 부임
1999. 5	3대 주북한 상주대사 Adoga Onah 부임
1999. 12	8대 북한대사 길문영 부임
2000. 2	라고스 연락사무소 개설
2003. 3	9대 북한대사 김병기 대사 부임
2004. 6	4대 주북한 상주대사 Sule Buba 부임
2007. 8	10대 북한대사 이찬호 대사 부임(2009년 7월, 뇌졸중 사망)
2008. 5	5대 주북한 상주대사 유소프 아므다 아부 부바카르 부임
2010. 2	11대 북한 대사 정학세 부임
2012. 7	주 북한 상주대사 Nwofe Alexander 부임(2015년 8월 이임, 현재 공석상태)
2013. 5	12대 북한대사 정영철 부임
2018. 4	13대 북한대사 전동철 부임

2 | 주요 인사 교류

(1) 방 문

1977. 3 북한외상 허담
1978. 3 북한 대외경제상 계장환
1978. 5 부주석 강양욱 방문(공식)
1980. 6 북한 교육자 대표 3명 방문(6월 21일~22일 서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세미나 라고스 개최)
1980. 8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양형섭외 3명
1982. 1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3명
1982. 8 북한 부주석 박성철
1986. 3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
1987. 1 북한 부주석 이종옥
1987. 10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용섭
1990. 7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비공식)
1991. 6 북한 대외무역부장 정송남
1991.12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1993. 2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영일
1994. 4 북한 외교부 부부장
1994. 10 북한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
1996. 4 곽범기 북한 기계공업부장(특사)
1996. 9 김철명 북한 공보위원회 위원장일행(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1997. 3 외교부장 김영남
1998. 5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 리영학
1998. 7 기계공업부장 곽범기(아바차 사망 조의차)
1999.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형섭

[대통령 취임식 특사]

2003. 10 북한 집단체조 지도 대표단 26명
2004. 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일행

[부통령 초청 형식]

2004. 3 북-나 공동위 대표단(리용남 무역성 부상 등)
2007. 5 야라두아 대통령 취임사절단(단장 : 양형섭) 방나
2010. 10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경축 사절단 파견

[정학세 북한대사 참석]

2011. 5 Jonathan 대통령 취임사절단(단장 : 양형섭) 방나
2014. 5 제4차 북·나 공동위 대표단(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
2016. 10 北 인민무력성 군사대외사업국대표단(단장 : 여성철 중장)

(2) 방 북

1977. 1 농림상 Mafewoye 방북(농림협력 협의)
1977. 8 경제개발상 Adewoye 방북
1978. 9 교통상 Shehu Wunti 방북(북한정권수립 30주년 경축사절)
1979. 4 참모총장 Yar-Adua 장군 방북(외상 Adefope 수행)
1979. 10 주중국대사 Saun 방북
1980. 9 군사절단(단장 : 육군참모차장 Wushishi 소장) 방북
1980. 10 NPN당대표단 Adedoyin 전 위원장 등 3명 방북(북한 제6차 당대회 참석)
1981. 5 상원 교육위원단 6명 교육시찰차 방북
1981. 8 평양 비동맹 식량농업 심포지엄에 Mamu 수자원장관 참석
1981. 10 북한 사로청 대회 NPN청년부 간부2명 참석(청년부장 Parick Abii)
1985. 4 제2차 세계기자 세미나에 National Concord지 기자 Gboyega Amobonye 참석

1985. 6 교육동맹위원장 '오싸니투루' 방북
1985. 8 국제문제연구소 '올라니안' 박사 방북
1985. 8 포타코트 대학교수 '아니크포' 주체사상 세미나 참석
1988. 4 나-북합동위 참석차 재무·경제개발부 Suitu 개발 원조국장 등 실무급 대표단 9명 방북
1991. 3 청년체육장관 '쿠레' 방북(경제대표단 인솔)
1991. 5 국방장관 '아바챠' 방북(군사대표단 인솔)
1991. 7 공보장관 '아키넬레' 방북
1993. 6 비동맹 공보장관 회의, 대표단 방북
1994. 8 국제청소년 야영대회에 대표단(13명) 방북
1995. 2 대통령특사 Useni 수도성장관(육군중장) 방북
1995. 4 예술단(20명)방북
1995. 5 군사사절단(Ayinla 국방대학원장, 해군소장) 방북
1996. 3 Walter Ofonnagoro 공보부 장관 방북
1996. 6 국방대학원생 10명 방북
1996. 9 공보부 영화담당국장 일행 방북

[제5차 비동맹 발전도상국 영화 축전]

1996. 11 M.B. Haladu 공업부장관(육군중장) 방북(나·북 투자보장 협정 서명)
1997. 5 Useni 수도성장관 일행 방북
1997. 7 청소년 대표단 24명 방북(평양 청소년 야영대회 참가)
1997. 9 Abubakar 국방총장 방북
2001. 7 Anyim Pius Anyim 상원의장 일행 방북
2003. 10 PDP 여성대표단 및 청년대표단 방북
2005. 10 el-Rufai 수도성 장관 일행 방북
2007. 보건부 대표단 방북
2008. 10 Shinkafi 잠파라 주지사 일행 방북
2012. 10 제3차 북·나 공동위 대표단(Onwuliri 외교부 국무장관 등)

2012. 12 투자촉진위원회 대표단 北 합영투자委 초청 방북
2014. 6 보르노州 국무장관 일행 방북

3 | 주요 협정 체결

1977. 8 경제과학기술협정
1977. 8 무역협정
1978. 3 수리사업 기술협력 협정
1981. 5 북한-Anambra 주 정부간 농업기술협력 협정
1984. 3 북한-Ogun 주 정부·산하 농체간 농업합작회사 설립 계약(북한 약 33만불 상당 투자)
1991. 7.22 북한-나이지리아 공보 협력협정
1991. 3 건설협력협정
1991. 12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 9 문화 및 교육협력에 관한 각서
1996. 11 투자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정
1997. 8 군사협력 확대 협정
2001. 6 곰베 주정부와 경제·기술 쌍무협조 합의서
2002. 8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2002. 8 군사협력 갱신에 관한 각서
2004. 4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협정(77.8 협정 1차 갱신)
2005. 8 북한-Yobe주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2005. 8 북한-Niger주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2005. 9 북한-Kwara주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2007. 4 문화교류협정
2008. 8 북한-Enugu주간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
2012. 10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협정 2차 갱신(3차 공동위 계기)

4 | 경제관계

가. 나이지리아와 북한 간 경제교류

» 나이지리아와 북한 간 교역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나이지리아의 통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파악은 불가(남북한 혼동 집계, HS Code 불명확 등)

»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북한인(약 200여명)들의 현지 외화벌이 진행

» 주로 연방정부 기관 또는 州정부와 MOU 체결을 통한 사업, 현지 합작회사 설립·운영, 현지업체에 인원 파견 등 3가지 방식

» 북한 근로인력은 건설(50여명)·의료(50여명) 분야를 중심으로 150여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외화벌이 기관 대표 등 간부(일부 외교관 신분)가 관리

나. 주요 지상사 진출 현황

» Akit-Rungra Acupuncture Center(침술 병원 운영)

» Aburime-Changsu Acupuncture Hospital(침술 병원 운영)

» Franason-Mannyon International(제약 회사)

» Katrad-Aprokgang Technology(생체인식(Biometrics) 기반 보안제품 판매)

» Mann Chemical(플라스틱 제품 등 생산)

» Korea General Machinery Trading(기계류 판매 및 기술인력 파견)[1)]

1) 이밖에도 北 남남협조·대외건설 대표부도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

5 | 주요 단체

» 나이지리아-북한 친선협회(회장 : 이브라힘 나시루 만투 前 상원 부의장)
- 1970년 12월 26일 최초 결성

»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위원회(위원장 : 알하산 아부자大 교수)
- 1981년 6월 나이지리아 주체사상 연구중앙회 발족, 2015년 現 명칭으로 변경





방문 안내

1. 항공편 148

2. 출입국 수속 148

3. 기타 참고사항 150

X

방문 안내



1 | 항공편

» 주요 국제공항은 Abuja, Lagos, Kano, Port Harcourt 공항 등으로, British Airways, KLM, Air France, Lufthansa, Emirate, Turkish Airline, Ethiopian Airways, Egypt Air 등 외항사들이 취항중이며, 유럽 주요 도시 일부는 직항로 편성

2 | 출입국 수속

» Visa는 90일 미만의 단기일 경우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영국, 일본, 미국 등 나이지리아 재외 공관에서도 사증 취득이 가능하나 초청장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받아가는 것이 무난

- 최종목적지 확정 항공권 및 유효비자 소지, 충분한 경비소지 등 필요
- 48시간 이내 연결 항공편 이용, 제3국 출국

» 입국 심사 시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 카드 소지 필요

- 특히 황열병 발병 국가로부터 입국시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가 의무적

» 휴대품의 소량 통관은 규정상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나 일정한 원칙이 없어 세관 관리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는 실정

- **나이지리아 입국 전 필요한 기본 예방접종 및 약**(2주전 주사 및 투약 필요)
  - 황열병(Yellow Fever) 주사
    ···› 황열병 예방접종은 9개월 이상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1회 접종시 면역력이 평생 유지(2016.7.11.부터 평생면역으로 변경)
    ···› 예방접종은 최소 출국 10일 전에 접종 필요
  - 디프테리아(Diphtheria) - 파상풍(Tetanos) - 소아마비(Poliomyelitis) 주사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 장티푸스(Typhoid Fever) 알약 3알(3일간 투여)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 뇌수막염(Meningitis) 주사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 광견병(Rabies) 주사 4회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 A, B형 간염주사 3회
    ···›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 말라리아 예방약

- 말라리아 예방약은 매우 종류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알 먹는 것(ex. Lariam)과 하루에 한 알 먹는 것(ex. Malarone)이 있음.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은 부작용이 적은 대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상당히 비쌈
- 말라리아는 모기에 안 물리면 안 걸리므로 휴대용 모기장이나 전자모기향 등을 소지할 필요

3 | 기타 참고사항

» 시간대 : GMT+1(한국보다 8시간 늦음) / 서머타임 없음

» 전압 : 230(Volt), 50(HZ), 영국식 세발 플러그

-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빈번하며 대부분의 외국인 및 부유층은 가정에 자가 발전기를 설치, 사용

» 국제전화코드 : 234, 수도(아부자) 지역코드는 9

- 한국으로 전화 시에는 009-82-지역번호
- SKT, KT, LGT 모두 통화 및 데이터 로밍 가능

» 결제수단 : 카드보다 현금이 일반적(나이라)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부정사용, 도용 등 위험 상존

» 환전 : 환전소와 시중은행, 호텔 등에서 가능

- 공식환율 $1≒₦306.20, 2018년 4분기 평균

» 부가가치세 : 5%(식당에서는 봉사료 10% 추가)

» 식당 : 소수의 양식당, 중식당 등이 있으나, 음식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

» 물가 : 한국(서울)과 비교시 물가가 비슷하거나 높은 편

-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현지 시장에서 물건 구입시 흥정도 가능하나 외국인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4~50% 이상)

» 외출 : 치안이 불안하므로 특히 야간 외출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최근 노상강도 및 납치 급증으로 자동차 등 육로 여행 위험 급증

[해외 여행경보 신호등]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 나이지리아 방문을 계획하실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별 여행경보 현황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0404.go.kr).

- 2019.10.8. [화] 기준 나이지리아 여행경보 현황

▣ **철수권고**(3단계, 적색) : 수도 Abuja, 북동부/ 니제르델타 등 18개주*

▣ **여행자제**(2단계, 황색) : 상기 적색경보 지정 지역 외 전지역